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료관광의 성공적 정착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정 영 훈

한국의료관광의 성공적 정착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
Medical Tourism
- Focused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정 영 훈

한국의료관광의 성공적 정착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진 철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정 영 훈

정영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장 용 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진 철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2장 의료관광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의료관광의 개념 및 현황	6
1. 의료관광의 개념	6
2. 의료관광의 특징	9
3. 의료관광의 변화	11
제2절 국외 의료관광 현황	14
1. 태국	14
2. 싱가포르	16
3. 인도	18
제3절 국내 의료관광 현황	19
1. 정부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추진현황	19
2. 국내 의료기관 성공사례	31
3.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	36
제4절 의료관광 성공요인의 선행연구	41
제3장 광주 의료관광 현황 및 특징	43
제1절 광주 의료관광 현황	43
1. 의료자원 현황	43
2. 관광자원 현황	47

제2절 광주 의료관광 추진실태	55
1. 광주 의료관광 정책 및 사례	55
2. 광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	65
제4장 광주 의료관광 성공적 정착 방안	78
제1절 광주 의료관광 문제점	78
1.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 제약	79
2. 소수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참여	80
3. 광주 의료관광 상품 부재	81
4. 광주 의료관광 낮은 인지도 및 홍보전략 미흡	83
제2절 광주 의료관광 성공적 정착 방안	85
1.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적 교육	85
2.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87
3. 광주만의 특화된 브랜드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88
4. 광주 의료관광 해외인지도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93
제5장 결 론	96
【참고문헌】	99

표 목 차

<표 1> 의료관광의 개념	8
<표 2> 의료관광의 범주 및 특성	10
<표 3>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 추이	12
<표 4> 중국 및 미국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2010 ~ 2013)	12
<표 5> 주요 의료관광국의 JCI 인증현황(2016)	13
<표 6>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회의 주요활동	19
<표 7>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관련 정책	21
<표 8> 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 중점전략(2017 ~ 2021)	22
<표 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인원 목표	23
<표 10> 2018년 광역시별 의료관광 추진체계 및 예산편성 현황	25
<표 11> 지자체별 의료관광 주요 사업현황	30
<표 12>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결과	34
<표 13> 8대 암 종별 5년 생존율 한국 및 미국 비교	37
<표 14> OECD 주요국의 CT·MRI 검진비용	37
<표 15> 주요 항목별 의료수가 3대도시 비교	38
<표 16> 한류 발전과정	39
<표 17>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현황	43
<표 18> 2017년도 인구수 대비 전국 의료기관 현황	44
<표 19> 2017년도 전국 의료기관 입원실 병상 수 및 증가율	45
<표 20> 2017년도 전국 의료기관 병상가동률	46
<표 21> 지역별 관광총량	48
<표 22> 관광여행 전반적 만족도	49
<표 23> 전국 관광자원 보유 현황	50
<표 24> 광주·전남 문화 및 자연·생태자원 현황	50
<표 25>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비율	52
<표 26> 2014 ~ 2018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관련 예산	56
<표 27> 2014 ~ 2018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현황	57

<표 28> 의료관광클러스터 기능별 구성요소	60
<표 29> 외국인환자 정의	65
<표 30> 2010~2017년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67
<표 31> 2018년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현황	69
<표 32> 광주광역시 진료유형별 외국인 실 환자 현황	70
<표 33> 광주광역시 진료유형별 외국인 연 환자 현황	71
<표 34>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	73
<표 3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주민 현황 추정	74
<표 36>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75
<표 37> 광주광역시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76
<표 38> 2017년 내국인환자 대비 외국인환자 진료비 비교	76
<표 39> 광주 의료관광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98

그림 목 차

<그림 1> 의료관광 개념도	8
<그림 2>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	66
<그림 3> 연도별 중국인환자 수	66

ABSTRACT

A Research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 Medical Tourism - Focused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Yeonghun, Jeong

Advisor : Prof. Jung, Jinchul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which is a fusion of medical service and tourism, is recognized as a new high value-added industry of a new ki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nd cities is very intense in order to prevail in attracting foreign patients. Korea has a higher level of medical technology, lower medical costs compared to major OECD countries, with the most advanced medical equipments in the world, and the reput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but it is a latecomer to medical tourism advanced countries. It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sustained policy promotion and active publicity marketing, and it has grown remarkably as a major medical tourism destination.

However, as various concepts of medical tourism are rais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concept of medical tourism because strategic focus can be changed depending on how the concept of medical tourism is established in Korean context or loc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and present the prospect of medical touris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ile early medical

tourism is primarily focused on serious medical care, it has attracted foreign customers when it has the appropriate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without requiring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When these tourism products and medical services are combined, the effects can be tremendous.

Therefore, we analyzed the trend of medical tourism, the trend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state of government, major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Gwangju, medical and tourism resources, policy promotion status, and statistics of attraction performance in detail.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iscovered problems of communication constraint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staff, participation of minority medical institutions, lack of medical tourism products, low awareness and lack of public relations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medical touris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four areas. The first is to acquire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field of medical tourism and to continue education.

Second, it i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third is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brands and medical tourism products. Finally, I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Gwangju reduce the barriers entering medical tourism and actively participate to improve the medical level,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create more jobs.

Key words: Medical tourism industry, New high value-added industry, Professional personne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of specialized brands and medical tourism products, Raise awareness oversea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 보건위생 개선, 교육여건 향상에 따른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신체적 치료를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예방 및 관리 영역으로 IT기술과의 융·복합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영주·김주현, 2018). 또한 의료관광산업의 가치는 현재 미화 4,390억달러(한화 약 489조원)에 달하며, 의료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의료관광객은 매년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VISA and Oxford Economics, 2016)

그리고 매년 최대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향후 10년간 전 세계 약 3 ~ 4%의 인구가 의료나 건강 관련 치료를 위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여행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2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은 2025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서는 반면 65세이상 노년 여행객은 증가하는 등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와 여행을 함께할 수 있는 의료관광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2025년 의료관광시장의 가치는 3조 달러(한화 약 3,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의료관광산업은 그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 의료 및 웰니스 인프라 개발,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의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료관광 선진국(예: 싱가포르 등) 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추진 초기 많은 사회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단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면서 의료관광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의료관광산업은 지속적인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외국인환자에 국한하여 국내 의료서비스의 개방을 통해 일부 영역을 산업화시켜 나가자 하는데서 시작되었고, 정부주도형 의료관광산업 발전되어 왔으며, 의료관광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의료관광 시장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하여 규모를 키우는 것에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도영(2011)이 강조하고 있듯이 해외 선발주자들의 의료관광 모델을 도입하기보다 한국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을 맞춤형화 하는 것은 의미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관광을 미용이나 성형 등의 간단한 시술 치료와 함께 관광을 곁들이는 개념에 중점을 두면서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 휴양, 쇼핑 등)이 조합된 헬스케어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기관들은 의료관광을 중증의 의료치료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하는 의료치료관광(medical treatment tour)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convergence) 산업으로서 일종의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복지과 수명연장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도영, 2011; 김양균 등, 2010). 하지만 의료관광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제기되면서, 한국적 맥락에서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관광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략적 초점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관광의 체계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김도영, 2011)

의료관광이 새로운 신수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이 심화되면서, 다수국가가 의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 오늘날 인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21세기 전략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삼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 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옴에 따라 2005년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가 200억 달러이었으나 2007년에는 267억 달러로 성장함으로써 3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 의료관광객 수 역시 2005년 1,900만 명에서 2007년 2,580만 명으로 연평균 16%의 급속한 증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 역시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하에 지난 2010년~2012년까지 3년을 특별히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글로벌 의료한국」 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투자와 노력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기술이 앞서고 있으며,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 역시 풍부하여 앞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의 파급효과로 외국인들의 미용이나 성형 관련 치료 및 수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한국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려정·김병용(2014)의 연구 등은 국가이미지와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의 이미지가 의료관광의 서비스 품질의 정도를 인식하는데 영향 미치며 또한 이를 통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준다.

태국,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지만, 2009년 1월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헬스케어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하여 국내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가능하도록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되고,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의료관광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산업은 국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 기대효과가 커서 일자리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방한 외국인환자는 36만 4천명, 진료수입은 8천 6백억원으로 2009년 대비 환자수는 연평균 29.3%, 진료수입은 48.2%가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2019년 65만 명, 2021년 80만 명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한 의료 인프라 및 면세점 등 쇼핑이 원활하고, 인천공항 등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및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의료관광객의 80%가 집중되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 실태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초창기 의료관광은 주로 중증의료처치에 집중한 반면, 최근에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지역적 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광상품과 의료서비스가 결합되는 경우 해외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우수한 의료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지자체 차원의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 열악한 접근성, 의료관광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기준 외국인환자는 2천1백5명으로 전국 의료관광객 대비 0.6%에 머물러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응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싱가포르의 레플스(Raffles) 병원이 삼쌍둥이 수술로 해외인지도가 높은 것과 같이 병원의 특성화를 통한 해외 인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며, 또한 광주지역의 시엘병원과 같이 해외 의료관광의 아웃바운드 진출에 대한 사례 등도 있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광주지역의 의료관광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의료관광의 지역별 현황 및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성공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한국관광공사, 정책연구원, 타 지자체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광주시의 의료관광 현황과 추진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의료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의료관광의 트렌드 변화 및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선진국 동향, 정부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의료기관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성공사례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광주시의 의료 및 관광자원을 심층 분석하고,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자료, 연구논문, 사례비교 등 각종 문헌을 검토하고, 정부 의료관광 관련 종합계획, 현황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여 최신 동향 및 시사점을 반영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을 밝히고, 제2장은 의료관광의 이론적 고찰로서 의료관광의 개념 및 특징, 의료관광의 트렌드 변화, 국내·외 주요 현황, 타 시도 성공사례, 성장요인, 성공요인의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과 광주 의료관광 정책 및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광주 의료관광의 문제점,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포함한 결론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의료관광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의료관광의 개념 및 현황

1. 의료관광의 개념

의료관광은 경제수준 격차가 심한 동남아의 부유층이 인근 지역인 싱가포르, 태국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긴 대기시간, 의료수준 불만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관광이 등장하였다. 의료관광은 의료+관광의 융합된 개념으로서 보편적으로 의료에 치중을 하는 경우와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이 하나의 단일 서비스 부문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정착되기 시작하여 그 개념도 점차 진화되었다.(산업연구원, 2013) Hall(1992)은 의료관광개념을 관광의 주요 동기가 건강증진과 관련이 있는 관광서비스로 정의하였고, Goodrich(1993)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광시설이 결합된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관광시설과 연계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목적지로 유치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로 정의하였다. Gupta(2004)는 중대한 수술과는 다른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 환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산업과 결합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제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 MTA)는 의료관광을 의과, 치과, 수술 등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자국보다는 타국으로부터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관계법령, 정책 등에 따라 의료관광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률상 의료관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에서는 ‘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 정의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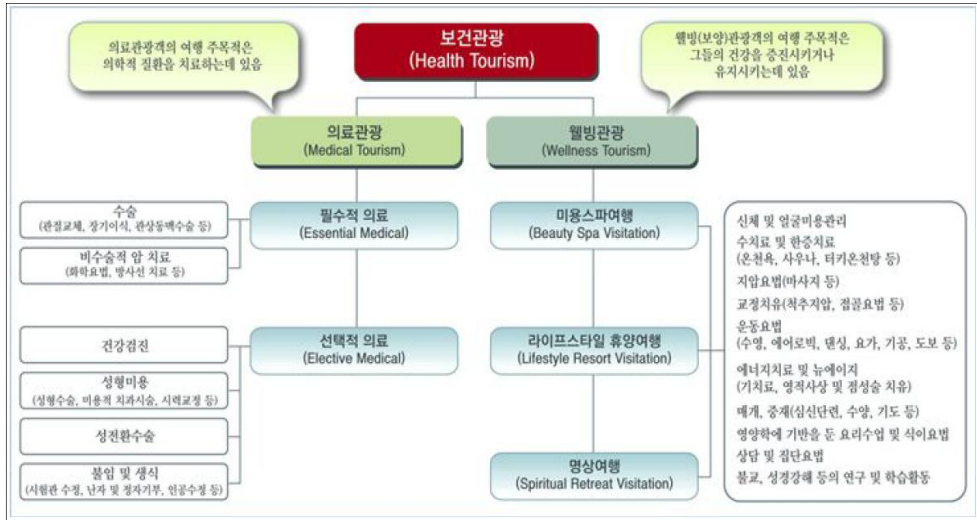
정책상의 의료관광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관광이 사실상 의료서비스임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률상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간 개념의 차이로는 간단한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목적과 함께 이를 계기로 상당기간 휴양, 힐링 관광을 겸하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을 찾아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제적인 동기의 의료여행을 하는 치료여행(medical travel)으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관광을 의료서비스와 문화활동·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를 의미하며, 의료를 주목적으로 타국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의료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건강휴양’을 연계하는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을 포괄하여 보건관광(health tourism)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새만금 국제의료관광허브 구축방안 연구 2015)

이처럼 의료관광 트렌드가 치료중심에서 예측, 예방, 관리 중심으로 미래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의료기관 외 웰빙, 미용, 스파, 휴양, 명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활동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림 1> 의료관광 개념도



자료: 새만금 국제의료관광허브 구축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표 1> 의료관광의 개념

연구자	정의
Laws(1996)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활동
Goodrich(1987)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촉진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시설 또는 목적지
Hall(1992)	특별한 흥미가 있는 관광종류의 하나로서 주요적인 동기가 건강과 관련한 관광
Eric(1996)	건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집을 떠나서 행동하는 레저 형태
Gupta(2004)	수술과 기타 다른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Melanie Smith & Laszlo Puczko(2009)	수술 또는 다른 전문적인 처치와 같은 치료를 위해 목적지로 여행하는 것

한국관광공사	본인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거주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1년 내의 기간에 타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모든 활동이나 이를 돕기 위한 동반자의 모든 활동
이용균(2005)	건강증진 및 치료 목적의 관광프로그램 및 서비스
조현준(2008)	관광의 요소가 배제된 순수 질병치료 형태, 선택적 치료측면의 간단한 성형수술, 미용수술 후 현지문화체험을 하는 형태, 현지 문화체험을 선호하며 건강검진, 체질감별 및 식이요법 등 예방의학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형태, 현재 문화관광체험을 중심으로 고유의 보완의학 및 정신 수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형태

자료: 조구현, 박찬열(2014), 김도영(2011)

2. 의료관광의 특징

의료관광은 의료관광서비스산업 및 의료관광기반산업으로 범주 및 특징을 구분할 수 있고, 의료관광서비스 산업 부문은 선택치료형, 중증치료형으로, 의료관광기반 산업 부문은 연구개발 및 생산 집적형과 융합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 의료관광서비스 산업 부문

선택치료형은 미용·성형 수술형과 웰빙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미용·성형 수술형은 가격경쟁력, 관광 및 휴양연계, 에이전시 역량, 해외마케팅 능력 등이 중요하고, 웰빙형은 질병방지 및 억제효과가 크며, 전통문화의 상품화가 관건이다.

중증치료형은 수술 치료형과 장기 재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고 높은 비용 때문에 질병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들은 선진국의 병원에서 첨단의료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다.

특히 장기 재활형의 경우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수술 치료 이후 지역의 요양 및 재활 전문병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분야는 국내 의료관광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의료관광기반 산업 부문

연구개발 및 생산 집적형은 의료기기, 의약 및 바이오, 건강기능성식품, 연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신 치료방법, 새로운 의약품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미래의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융합형은 의료과 관광휴양, 연구·생산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의료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의료시설, 비즈니스 환경, 숙박 시설을 구성한다.

<표 2> 의료관광의 범주 및 특성

유형		육성분야	경쟁요소	대표국가 사례	
의료관광서비스산업	선택치료형	미용 · 성형 수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 성형 - 기본적 수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 - 관광 및 휴양 연계 - 에이전시 역량 - 해외마케팅 능력 - 국제병원인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국가(태국 등) - 중남미국가(코스타리카, 멕시코, 브라질 등) - 동유럽국가(헝가리, 체코 등)
		웰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 메디컬스파, 테라피 - 휴양프로그램 - 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방지 및 억제효과 - 전통문화의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온천요법, 국제건강센터 - 중국: 동인당, 북경대학침술 - 태국: 전통 타이치료법 명상, 스파, 요가, 침술 등 - 인도: आयुर्वेद, 요가, 스파
	중증치료형	수술치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난치형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료수준 - 해외네트워크 - 의료세미나 - 의료진 교류 및 교육 연수 - 국제병원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메이요 클리닉, SCCA, MD앤더슨, PIM - 싱가포르: 래플즈 - 태국: 범룽랏
장기재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 및 재활 				
의료	연구개발 및 생산 집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의약,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IMD (일리노이 메디슨 지구) 	

관광기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 연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명공학·벤처산업 육성 -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산업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베 메디컬 센터
	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의료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적 집적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바이오 허브 - 중국: 상하이 국제의료 지구 - UAE: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료: 의료관광단지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정경석 2013)

3. 의료관광의 변화

경제수준 격차가 심한 동남아 부유층들이 자국 의료서비스 수준 및 장기 대기시간의 사유로 태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료관광이 개념이 등장하였다. 베트남은 자국의 취약한 의료진 및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서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국 환자가 연간 4만명에 이르고, 그들이 쓰는 의료비는 연간 수조원 규모라고 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21% 만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3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의사가 없을 경우 간호사가 대신해서 진료를 하거나, 진료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등 수준 낮은 의료수준, 의료진의 불친절, 비싼 의료비, 낙후된 의료설비, 이용불편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만족도가 대체로 떨어지는 자국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 등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한국경제, 2014.1.)

그리고 의료기술 발전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자국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의료비 부담과 함께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의료관광산업을 성장시킨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OECD Health Data(2014)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변화를 보면 2000년 7.8%에서 2015년 1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 추이

(단위 : %)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OECD	7.8	8.9	8.9	9.0	9.3	9.8	10.2

자료: OECD Health Data(2014)

또한 역년중국위생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 의료비 지출은 2009년 17,542억위안에서 2013년 31,869억위안으로 81%가 증가하였으며, 미국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010년 8,402달러에서 2014년 9,523달러로 13% 증가하였다.

<표 4> 중국 및 미국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2010 ~ 201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의료비 (억 위안)	19,980	23,446	27,847	31,869
	증가율(%)	13.9	17.9	18.8	14.4
미국	1인당 의료비(달러)	8,402	8,666	8,927	9,115
	증가율(%)	3.1	3.1	3.0	2.1

자료: 역년중국위생통계공보(2014)

그리고 동남아의 경우 자국의 같은 비용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가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의료서비스 특성상 인간의 신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실수나 실패가 발생하면 복구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JCI¹⁾인증을 받아 위험을 감소시켜 의료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1)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인증으로서 환자의 안전 및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모든 과정을 11개분야 1,033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평가

<표 5> 주요 의료관광국의 JCI 인증현황(2016)

(단위 : 개소)

구 분	한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JCI 인증기관	28	53	27	22	17	13

자료: 한국의료관광마케팅(한국관광공사 2016)

소비자들은 인터넷, 미디어 등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해외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수가 2005년 10억명에서 2014년 30억명에 이르고 모바일 폰 가입자 수도 약 7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머지 않은 미래에 지구 상의 모든 인구가 인터넷 환경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관광 산업은 날로 성장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기관 및 관련부처들이 의료관광산업 시장의 규모 추정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분석자료의 정확성과 연구결과의 일관성 부분에서 높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결과는 의료관광산업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다.(산업연구원, 2013)

의료관광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의학의 발달,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인식 개선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변화하고 있으며, 4P(Predictive 예측, Preventive 예방, Personalized 맞춤, Participatory 참여)를 기반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질병치료 영역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질병예방, 사전진단, 사후 건강관리, 웰빙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니스관광 영역은 의료관광에 비교했을 때에도 약 30배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The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 2013&2014)

세계보건기구(2014)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우울증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 1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인들은 최근 디지털 치매, 번아웃 증후군,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많은 종류의 정신적 질환과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웰니스관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려는 욕구가 증가해져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만성질환, 심장병, 암의 정밀검사부터 미용, 스파, 다이어트까지 각종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의료관광산업은 이렇게 웰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자연환경,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습관병,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제2절 국외 의료관광 현황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2012년 약 100억달러로 2004년 대비하여 2.5배 가량 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약 330억달러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태국, 싱가포르, 인도, 헝가리 등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저렴한 진료비, 짧은 대기시간, 관광이 결합된 휴양 제공 등 입지를 구축하며 주요 의료관광 목적지로 손꼽히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6)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의료관광 허브(Hub)를 지향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관광’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1. 태국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마사지 및 허브의 발달로 인해 일찍부터 관광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이와 연관된 의료관광이 함께 발전하였다. 1970년대부터 의료관광을 시작하여 1980년대 관광산업과 접목시키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유희설비 활용방안으로 외국 고령자층을 타깃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켰다. 이후 민간의료기관들의 의료관광객 유치 성과가 높아지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

급효과 등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부각되었으며, 가장 성공적인 의료관광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웰니스 및 스파 관광객을 포함하여 26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47억달러(약 5조200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광주전남연구원 2016)

태국 정부는 다양한 웰니스 시설과 스파 등 휴양시설을 갖추고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추정하고 매년 10%이상 수입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태국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국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저렴한 인건비 및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결합해서 질과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요 외과기술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70 ~ 90%,저렴하고 싱가포르보다 20 ~ 40% 저렴하다. 방콕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범룽랏 국제병원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태국의 260만명 의료관광객 중 26%인 66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범룽랏 국제병원은 1980년 설립하여 2002년 아시아 최초의 국제병원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6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제적 종합병원으로 16가지 의료분야의 대규모 임상과 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역서비스, 비자처리 및 공항 수속 등 전체 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진료비 및 입원실 비용 등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의료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병원 접수대 주변에는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등 통역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직원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잘 구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잘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장점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고객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호텔 수준의 숙소와 식사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웰니스 분야로 건강 컨셉의 대규모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설인 치바숨 리조트는 개별적인 맞춤형 건강정보 안내 및 상담과 체질적인 특성에 맞

는 유기농 스파 음식,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높은 비용의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재방문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 고령자를 주요 타깃시장으로 선정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장기 요양·투숙을 위한 효양리조트, 1:1 간호간병서비스,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태국을 찾는 주요 의료관광객은 해외환자의 70% 이상이 인접한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되는 싱가포르와 달리 일본(16.7%), 미국(8.7%), 영국(7.6%), 독일(3.8%)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휴양, 전통마사지, 스파, 아로마테라피,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합의료관광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지난 2004년 태국을 아시아의 건강수도이자 의료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태국 약초상품 등의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 3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타이 마사지, 건강 스파, 장기간 체류 헬스케어 상품이다. 태국의 스파 부분은 단연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파를 보유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의 니즈에 맞춤형 스파 관광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의 특성 및 지리적·역사적 배경 때문에 의료서비스 시장과 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국제화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 공용화, 높은 의료수준, 서구적인 문화 및 사회적 규범, 많은 JCI국제인증 병원 등으로 우수한 의료관광 목적지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의료관광마케팅, 2016)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금융 선진국으로 의료관광산업 역시 이러한 개방적인 환경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관광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85만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동반가족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료관광객은 20만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싱가포르는 2003년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 확대 및 투자 촉진, 의료마케팅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싱가포르 관광청, 무역개발국, 경제개발위원회 세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복합 에이전시인 ‘싱가포르 메디슨’(Singapore Medison)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산업연구원, 2013)

그리고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소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회사 리서치센터를 유치하고, 복합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매년 14억여 원을 해외 의료서비스 홍보에 투자하는 등 세계 일류 수준의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 국가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의사를 대폭 고용하여 해외 병원과 싱가포르 병원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싱가포르 신성장동력 주요정책 ‘Vision 2018’에서 고령화·의료·건강 분야 중심에서 웰니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관광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의료와 웰니스 연계 모델이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가 훨씬 자유롭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이 쇼핑몰과 호텔 등 시설 전체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 원무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공간 분리규제를 받지 않아 병원과 호텔이 주방을 공유할 수 있어 병실에서 호텔급 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은 높으나 국토가 좁고 기후가 덥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현대적 이미지의 강점을 활용해 해외 투자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클러스터형 복합리조트 및 호텔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침술, 한방약, 지압 치료와 같은 전통치료를 서양치료법과 접목시킨 건강관리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싱가포르관광 홈페이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병원으로는 레플즈 메디컬 그룹이 운영하는 3차 민영 종합병원인 레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이 있다.

이곳은 건강보조식품 생산 및 판매, 치료비 사전 확인이 가능하며, 진료예약, 여행안내 및 호텔예약, 비자신청, 공항픽업 및 후송서비스, 통역서비스, 공항 앰블런스 서비스 등 외국인 전용센터를 구축하여 윈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 인도

인도는 요가라는 강력한 국가 웰니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의학을 전담하는 부처인 आयुर्वेद²⁾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만의 웰니스 투어리즘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인도정부는 의료관광 및 웰니스관광 진흥을 포함하는 ‘Tourism Vision 2030’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통의학과 기존 관광인프라, 영어 능력을 활용하여 아시아 내 의료관광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계도 존재한다. 체계화된 병원 인프라의 부족으로 처음 병원을 방문한 고객은 수속 절차가 복잡하고 진료 시 의사들이 수기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병원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IT기술을 접목시키고, 의료지원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도의 웰니스 상품으로는 인도 북구 해발 1,000m의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आयुर्वेद 기반의 웰니스 리조트인 ‘아난다 스파’가 있다. 히말라야의 자연경관과 인도 전통 의술을 접목해 세계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었다. 하룻밤에 8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고가 상품이지만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를 맞이하기 위해 리조트에는 의사, 인도 전통의학 전문가, 관광객의 체형과 건강에 맞는 음식 및 요가 방법을 처방하는 치료사 등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동아일보, 2013.7.)

하지만 이곳은 뉴델리에서 차로 8시간 이상 걸리는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역으로 낮은 접근성을 차별화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지역 의료관광에서 열악한 접근성이 의료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현상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장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JCI 국제인증을 통

2) आयुर्वेद : ‘생활의 과학’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आयु(Ayu)는 ‘삶’ 또는 ‘일상생활’을 의미하며, वेद(Veda)는 ‘앎’이라는 뜻을 지닌 आयुर्वेद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वेद(Veda)에 맨 처음 기록되었으며, 이 의학체계는 인도에서 5천년 이상 동안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 왔다.

한 안전에 대한 신뢰감과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추진체계, 건강증진을 위한 클러스터형 복합리조트 설치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 다른 나라와는 특별한 자국만의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크게 3가지(추진체계, 인프라, 브랜드)로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국내 의료관광 현황

1. 정부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추진현황

국내 의료관광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의료관광 관련 상품개발, 홍보, 의료분야 전문 통역사 제도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중심으로 34개의 의료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정부 의료관광산업 파트너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6>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주요활동

(단위 : 개)

시 기	주요 활동	비 고
2006. 12.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07. 3.	해외환자 민·관 공동 협의체인 한국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 발족	
2007. 5.	미국(LA) 홍보설명회 개최	미국 LA
2007. 6.	홈페이지 오픈 (http://www.Koreahealthtour.co.kr)	한국·영·중·일어
2007. 10.	제6차 세계 한상대회 참가 및 의료관광 해외홍보	부산 벅스코

2007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코디네이터 및 언어교육)	코디네이터 91명, 언어교육 48명 지원
2007	해외 의료인력(의사) 교육 연수 지원 - 해외 의료인력의 국내 의료기관 교육 연수 지원	8개 기관, 27명 교육
2008	해외홍보 마케팅 실시	잡지 및 웹사이트 홍보

자료: 한국의료관광총람(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11)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영 건강보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17개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의료관광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TF’를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시작하였다. 그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한 이래 의료관광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 국제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외문인 방문객 안내 편의제공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 관리,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대책,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 주무부처가 ‘선진의료기술’ 중심의 보건복지부와 ‘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및 예산이 다소 중복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계와 협력이 취약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3)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OECD 주요국 대비 저렴한 진료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한류 영향으로 인해 국가인지도가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선진국에 비해서는 후

발주자로서 위험요소와 추진 초기 많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료관광의 주요국가로 성장하였다. 의료법 개정 이후 중앙부처가 추진한 정책들을 다음 표와 같이 시기별과 기능별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 7>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관련 정책

구 분	주요 정책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환자 유치 기반조성 및 의료관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유치기관 등록제 시행, 메디컬 비자 도입, 의료기관 숙박업 운영 인정 등 제도 신설 -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및 국가별 홍보 추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지도 상승 -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해외환자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 -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출시 - 지자체의 대표적인 특화 의료기술 발굴과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상품개발을 위한 지역선도 의료기술 특성화 사업 추진('10~'18) * 부산-서면메디컬스트리트, 대구-모발이식센터, 서울강남-강남뷰티허브, 전북-첨단로봇도시, 전남-관절치료 등)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중점과제 및 13대 일반과제 추진 -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 Medical Korea Academy 의료 연수 확대 및 외국 의료인 임상 참여 제한적인 허용 추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신흥시장 개척 및 시장 공략 다양화 - 환자송출 관련 산업 진출을 통해 의료한류(K-medicine) 저변 확대, 중동 주요국과 업무협약 체결 등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 단순히 인근 국가인 일본·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중동(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중앙아시아(우즈벡·몽골·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의료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공략 다양화 추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양화 및 의료수출 -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 -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기반과 병원 수출 전문기업 설립 허용
-------	--

자료: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산업연구원 2013)

국내 의료관광이 체계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시행되면서부터이다.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 마련과 국내 시장을 벗어나 인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종합 플랜인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11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기본방향은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의 비전과 함께 5개의 중점전략, 18개의 주요과제, 50개의 단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표 8> 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 중점전략(2017 ~ 2021)

구 분	주요 정책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료 연관 산업 동반 패키지 수출 ○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역량 강화 ○ 금융·세제·정보 지원 ○ 한의약 세계화 지원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편의성 강화 ○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지역 특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시아 ○ 중동·아프리카 ○ 러시아·CIS·몽골 ○ 중남미

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원 ○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확대 ○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료

자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6)

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서는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목표를 2017년 167개에서 2021년 211개로 정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인원을 2017년 47만명에서 2021년 8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표 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인원 목표

구 분	2017년	2019년	2021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167개	189개	211개
외국인환자 수	47만 명	65만 명	80만 명

자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에 외국인 의료 이용이 90.8%로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충북, 경기, 제주 등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 환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으로 집계되었다.(외국인환자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2018)

2017년에는 중국 사드영향으로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가 2016년 대비 48%가 감소되었으나, 태국 환자는 56%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국적별 환자 수가 각종 이슈들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내과통합 진료과에 외국인환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검진센터, 산부인과, 치과 등이 1순위 진

료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평균 외국인환자 1인당 진료비는 199만원으로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진료비, 외래, 건강검진, 입원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48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높은 기술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수가 밀집해 있어 의료관광 관련 인프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관광 브랜드 확립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 및 고도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및 웰니스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8년까지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의료관광 수용태세 개선, 외국인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조성, 서울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요 지역구마다 의료관광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하여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 내에 의료관광 전담부서가 2018년 1월에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5개 자치구에 의료관광을 전담하는 부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의료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유치 역량을 갖춘 기관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Seoul Medical Tour Alli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의료관광협력기관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50개소, 관광관련 기관 35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시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10개 언어권 90여 명의 의료관광 통역사 및 전문코디네이터를 서울시 관내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항 환대 피켓팅 서비스, 차량픽업 등을 제공한다.

또한, 2016년 2월에는 의료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 중구 명동에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를 개소하여 5개 언어권의 의료관광 전문 상담원이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소개, 관광안내, 의료관광 코스 및 상품 홍보, 통역 및 픽업서비스 연계 등 서울 의료관광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에 4개 언어로 시술과목, 시술시간, 시술비용, 기타 세부사항 등 외국인환자 진료수가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진료비 정보 부재로

인한 부당한 비용, 불법 브로커 등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료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건강검진과 중증질환 치료, 미용·성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기간을 지나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김포공항, 인천공항, 평택항 등 외국인 입국 장소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킨텍스, 한류월드 등을 중심으로 MICE 산업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주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시별 의료관광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역시별 차이점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표 10> 2018년 광역시별 의료관광 추진체계 및 예산편성 현황

구 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담 당 부 서	미래산업국 첨단의료산업과	미래산업추진본부 의료허브조성과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의료관광팀(5)	의료관광팀(3) 의료서비스팀(4)	국제의료팀(4)	의료관광팀(3)	의료관광팀(3)
	1팀 5명	2팀 7명	1팀 4명	1팀 3명	1팀 3명
협의회	(사)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메디시티대구 협의회	-	(사)광주권의료 관광협의회	-
실 무 관 련 단 체	부산관광공사 (기획전략상품개발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경영기획팀) (의료관광 1팀) (의료관광 2팀) *지원센터 별도	인천관광공사 (의료마케팅팀)	광주의료관광 지원센터	대전마케팅공사 (의료관광팀) *지원센터 병행
	1팀 4명	3팀 16명	1팀 8명	1팀 3명	1팀 8명

관 련 조 례 제 정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조례(200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조례(201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조례(2017)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2016)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2011)
특 화 사 업	미용, 성형, 난임	모발이식센터	심뇌혈관	관절, 심혈관, 난임, 안과, 치과	건강검진
2018 사업비 (백만원)	2,018	2,462	1,378	1,004	913

대구는 2015년까지는 외국인환자 수가 전국 5위 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8년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의료산업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차원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년 24억여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에는 유구한 의료 역사를 지닌 4개의 대학병원 및 1개의 한의대학병원을 포함하여 3,3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 지역 보건의료 기관을 통합한 전략 실행 협의체로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설립하여 의료산업과 관광 아젠다를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시청 조직과 별도로 2008년 비영리단체인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을 설립하여 병원 안내, 입출국 절차, 통번역, 교통, 숙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및 상품개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00여 개의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심사하여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대구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보상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대구시는 모발이식센터 및 한방의료-휴양-문화체험 연계 관광산업벨트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구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의료관광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광주 지역 의료관광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을 면밀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시가 수립한 「2018년 대구의료관광 추진계획」의 과거 의료관광 평가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인프라 부분으로 대구시는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전담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현황으로 대형병원 평균 5명, 병원급 1.4명, 의원급 1.3명이며, 전문인력을 미보유한 의료기관도 11개 기관으로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 활동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구시 자체 의료관광 통역사를 14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에이전시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채용 관련하여 선도 의료기관 10개소와 5개 에이전시를 선정하여 기관당 6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장기 의료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숙박업소가 부족하여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등 저렴한 숙박업소를 추가 발굴하고 대구의료관광객 대상 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입국전 사전 상담부터 출국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해외에서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는 해외홍보센터를 7개국 15개소에서 10개국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정보 획득 채널이 부족하는 등 영어권 의료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월 2회 미군부대를 방문하고 현지 민간단체, 경제단체 등에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관내 의료기관 중 JCI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5개 기관(울포스킨피부과, 미르치과, 덕영치과, 에필성형외과, 경북대건강검진센터)으로 지역 우수 의료기관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8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관광 도시 대구”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지리적 접근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의료관광산업 허브로서 도약을 하고 있다. 의료관광 초기단계에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JCI 인증 획득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토양을 마련

하였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위한 환승의료관광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환승객들이 시간에 지체되지 않도록 인천공항에서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대로 접근 가능한 인하국제의료센터,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지안건강증진센터, 나사렛국제병원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성공하였다.

2015년 9월에는 기존 2011년에 설립된 인천의료관광재단을 비롯하여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 교류재단을 통합하여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해외 언론 초청 취재 홍보,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인천지역 의료관광의 강점을 알리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가 관광과 뷰티웰빙이 결합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국내외에서 커다란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인천 촬영지를 관광 상품화하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의료관광 융합상품인 “별그대 in 인천 + 뷰티웰빙투어”를 개발하였다.

본 관광상품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여 각국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인천에서의 숙박을 기본으로 하고 송도석산,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대학교, 휴띠끄(화장품전시관), 성형미용 투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드 여파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줄었지만, 인천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환자가 12.2% 증가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배포한 언론보도자료(2018.5.18.)에 따르면 주요 성장요인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팀인 국제의료팀을 신설하고, 인천시티버스 결합상품, 인천관광공사와 공동 개발 상품 등 인천의 특색을 살린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별 주요 질환과 관심사를 고려한 타겟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서비스 뿐만 아니라 환전, 휴대폰 로밍 안내 등 부가서비스는 물론 통역 코디네이터가 인천의료관광도 안내하는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외국인환자 수 사후관리 안심시스템(Peace-Of-Mind, POM)을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환자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90일간 1:1 후속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90일 내에 치료받은 결과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의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재방문 시 치료 일정 조율, 재방문 치료 시점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항공, 숙박, 체류생활비(치료기간 중 식대, 교통, 보조기구 등) 재방문 치료 체류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환자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고 있어 광주지역에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벤치마킹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해양레저 및 MICE 산업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다수의 JCI 국제인증 의료기관 보유 등 풍부한 의료자원 보유로 최적화된 의료관광 환경을 갖추고 있다. 2015년 의료산업과를 신설하여 2030년 아시아의 3대 의료관광 도시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추진협의회, 외국인환자유치업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의료관광설명회, 해외특별전,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Busan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nvention, BIMTC)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키고 부산항 입항 크루즈 수요에 맞춘 체류형 의료관광 및 크루즈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부산 서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74개소와 뷰티 관련업체 270여개와 함께 글로벌 뷰티메디컬스트리트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아 떠나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메디·뷰티 힐링여행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피부·성형·치과의 의료관광, 네일·헤어·웨딩촬영의 뷰티관광, 주름·색소·줄기세포 치료의 안티에이징, 최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한 건강검진, 부산의 지역 특색을 활용한 힐링관광 등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호텔과 전통시장, 먹거리와 부전마켓타운의 야시장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것이 큰 장점이다. 광주시도 상무지구, 버스터미널 등에 많은 의료기관과 호텔, 쇼핑, 교통,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사례와 같이 관

런 인프라를 정비하여 대한민국 서남권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시의 의료관광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김도영(2011)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믿음성 있고 안전한 의료활동, 외국인환자들에 대한 윈스톱 진료시스템의 구축, 휴양 및 숙박시설 그리고 잠재성 있는 관광자원의 제시 등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국가들과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며 성형, 한방, 건강검진 등에 대한 장점 등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 다음 <표 11>은 각 지자체별 의료관광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영역을 검토하여 광주광역시의 독자적인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다.

<표 11> 지자체별 의료관광 주요 사업현황

지역	주요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협의체 구성·운영 ○ 의료기관 차움-스마트택시 업무 협약 ○ 의료서비스 외에 관광·교통·다국어 상담·의료기관 가격 공개까지 안내하는 토털 웹사이트 운영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 컨퍼런스 및 잡 페스티벌 추진 ○ 의료서비스 안내 중심 ‘경기국제의료협회’ 와 관광중심 ‘경기메디투어’ 홈페이지 통합하여 관광할인쿠폰 등 제공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한방치료 분야를 특화로 한 지역브랜드 개발(전인병원) ○ 한방의료+휴양+문화체험으로 한 휴벨트 구성 ○ 의료관광 전문 택시 사업 출범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접근성 기반으로 요우커 및 주한미군 특화 상품 추진 ○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의료상품 개발, Peace of Mind 보험 상품 활성화 - 1시간 내 인천지역을 묶는 테마형 상품 개발 등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페리와 연계한 크루즈 의료상품 개발 ○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으로 의료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부산 의료관광 앱(App) 운영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전략 국가 마케팅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융·복합 상품 개발을 통한 단체 의료관광객 유치 ○ 정부 공모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확충 노력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에 위치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 추진 ○ 원광대병원 중심으로 13개 종합병원 기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 종합검진, 홍삼 스파, 갯벌체험 상품 연계 활용

자료: 각 시도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 국내 의료기관 성공사례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비수도권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로 ‘대전선병원’을 들 수 있다. 선병원재단은 1966년 20병상의 선정형외과의원으로 개원을 시작하여 대전 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유성선병원, 선치과병원 등 4개 병원에서 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하였다. 11개 전문센터와 39개 진료과를 운영하여 일일 외래환자 3천명 이상이 찾는 의료 지방화의 성공 모델이자 글로벌 선도병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선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는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2011년 보건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첫 해인 2011년 870여 명에서 2014년 5,400여 명으로 4년간 6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선병원이 수도권과 먼 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유치 실적이다.

선병원의 성공전략은 4가지로 철저한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스템 구축, 글로벌 병원 목표로 적극적 해외마케팅, 고객 만족과 재방문·신규고객 창출의 선순환이다.

‘암 발견에서 치료까지’를 브랜드화 하여 재단 4개 병원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의 질을 높였다.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해외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각 병원 전문의 간 합동 진료시스템을 가동해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3D스캐팅을 이용한 로봇밀링시스템을 갖춰 보철치료가 하루 만에 가능토록 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한번 방문으로 짧은 시간에 건강검진부터 관절, 척추, 심·뇌혈관, 암, 치과 등 다

양한 분야의 진료와 치료가 가능했다.

그리고 좋은 의료진 즉 명의를 도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명의의 기준은 우선 환자 곁에 많이 있어주고,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진료분야를 겸비하여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로 그 기준이 까다롭다.

2012년에는 선치과병원이 JCI(국제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에는 유성선병원의 국제검진센터가 추가로 JCI를 획득하였다.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1,200여개 항목을 통과하여 검진센터 부문 세계 최초로 선정되어 국제적 수준의 환자 안전과 진료환경을 갖추었으며,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분야별 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다. 또한 진료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의료진들의 진료가 적정한지 자발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안전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그리고 현지 중심의 해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시에 내원하는 해외 환자에게는 진료시간 조정 및 관리를 비롯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나갔다

그 곳을 다녀간 환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해외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선병원의 의료기술을 배우려는 해외 의료진의 연수도 잇따랐다.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10여개국 200여 명의 의사 및 간호사, 스텝 등이 선병원의 인공관절수술, 복강경 암수술, 심혈관 스텐트 시술 등의 의료기술을 비롯해 병원경영과 서비스교육 연수를 받았다.

해외홍보를 위해 러시아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초대된 150명 중 8명만이 참석하는 등 병원 인지도가 낮았으나, 이들 8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첫 내원 환자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를 통해 재방문을 이루어 내면서 의료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쌓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최근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에서 의료기관 설립 자문 및 컨설팅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는 병원과 호텔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잘 융합하여 성공모델을 만든 ‘제주한라병원 WE호텔’이다. 기존 국내 병원들은 의료관광 개념을 수술, 입원, 약물 등 협의적인 형태로 접근하는데 그쳤지만, 제주한라병원은 웰니스관광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4년 2월에 개소한 WE호텔은 한라산 중산간 해발 350m 숲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웰네스·뷰티센터, 건강증진센터, 메디컬스파센터 등 다양한 센터를 보유하여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청정제주의 대표적인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하여 천연림 및 메디컬스파(Medical Spa)을 결합한 산림테라피라는 자연치료요법을 받을 수 있다. 개소 당시 대부분 중국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럽, 러시아, 몽골,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되고 국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가입비가 수억원대인 VIP회원만 수십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주한라병원은 유럽에 선진사례를 접목시켜 병에 담아 파는데 그쳤던 물을 치유에 이용하기로 관광객들의 중독성에 매료되어 재방문을 이끌어냈다. 실제 호텔 지하암반 2,000m 아래에서 올라오는 천연화산암반수를 음용하고 워터테라피 시설에 사용하면서 천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라의료재단은 ‘WE호텔’ 이외에도 서울 용산에 인터내셔널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관광에 대비해 본격적인 ‘메디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첨단의료시설과 호텔 등이 갖추어져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치료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전체 면적 6만 3천㎡에 지상 36층, 지하 8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14개층은 의료시설로, 20개층은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레지던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수 있는 우수한 기관을 지정·양성하고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2017년 최초로 시행하였다.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로 나뉘지며, 세부항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연계, 의료분쟁 예방, 안전보장활동, 환자진료, 감염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현재 전국에서 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다. 가천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부분 정보제공체계(다국어 홈페이지), 동의서 언어권별 비치,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표 12>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결과

연번	의료기관명	종 별	지정 유효기간
1	길의료재단 가천길병원	상급종합	2017.8.18 ~ 2019.8.17
2	인하대학교병원	상급종합	2017.8.18 ~ 2019.8.17
3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병 원	2017.8.18 ~ 2019.8.17
4	JK성형외과 의원	의 원	2017.8.18 ~ 2019.8.17
5	차여성의원	의 원	2017.12.18 ~ 2019.12.17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

인하대학교병원은 전체 유치인원 중 30%가 암질환 환자로 일평균 진료비가 매우 높다. 인하대병원은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외국인환자가 연인원 4만 5천여 명과 60억여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다.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과정을 환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병원 자체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언어권별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환자가 원하는 것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만족도와 재방문 횟수가 높다.

그리고 공항의료센터 및 인하국제의료센터와 협력하여 인천지역 내 의료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지역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의료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가장 전망이 좋은 맨 위층인 18층에 외국인환자 전용 휴게실이 설치되어 병원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VIP 병실은 하루 입원료가 50여만원으로 침대 옆에 바로 진료장비들이 설치되어 병실에서 바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2010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환자 원격자문, 고려인 의료인력 단기연수 등 고려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의료관광시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주지역에서도 광산구 월곡동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마을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인하대병원의 의료관광 활성화 성공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다.

한길안과병원은 총 14층 규모 57병상의 인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이다. 당일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치료가 가능하며 검사 장비에만 25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고가의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곳으로 유명하다.

연간 수술 시행 건수는 2016년 기준 1만 건 이상으로 근무하는 안과 전문의만 24명으로 기본적인 안과 진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모두 가능하다. 한길안과병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국제진료팀을 개설하여 외국인환자의 방문 전부터 퇴원까지 모든 일정을 책임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JK성형외과의원은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고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전국 최초로 받은 의료기관으로 2009년부터 해외환자를 위한 1:1 전담코디네이터 및 전담치료관리 간호사를 배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권별 의료전문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수입 기준 전국 3위에 오르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3.10.18.)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면윤곽·양악센터, 가슴성형센터, 안티에이징센터, 뺨피성형센터, 바디라인센터, 모발이식센터 등 각 성형센터별로 전문 의료진을 구성하고, 메디컬 스파 및 에스테틱 등 웰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안전마취센터와 최첨단 수술센터를 구축하여 다른 성형외과의원과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수술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외국인환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는 ICS팀(International Customer Service)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의료관광객의 통·번역, 상담, 진료, 수술, 회복 관리, 퇴원, 출국 후 온라인 체계 관리까지 모든 일정을 원스톱 처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원내에 호텔급 입원실을 마련하여 수술 후 환자들이 호텔과 같은 최적의 환경에서 의료진 회진시스템, 간호사 24시간 상주, 체계적 수술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입원이 가능하다. 나라별로 맞춤형 음식문화 및 수술 후 영양을 고려한 외국인환자 전용 식단 개발과 고급스러운 룸서비스 제공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상담실을 별도로 제공하여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VVIP 환자를 위한 상담실, 입원실, 회의실, 대기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명품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연방규격 기준을 적용한 무균수술실, 주간수술센터 및 집중치료실 시스템, 먼지흡착기, 에어샤워 등 무균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만일 사태에 대비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상황대처팀, CMS중앙감시 시스템, 대학병원과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구 내 안전장비를 갖춘 1%의 성형외과로 의료사고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1,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를 의료관광지로 선택한 이유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이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의료진 및 의료기관 인지도 37.8%, 최첨단 의료시설 및 장비 21.5% 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13) 국가별 의료기술 수준을 비교 측정할 때 ‘암 환자 5년 상대생존율’ 지표³⁾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 지표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 ~ 1995년간 암 환자 생존율은 41.2%에 불과하였으나 2001 ~ 2005년간에는 53.7%로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5 ~ 2010년간도 64.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3) 5년 상대생존율 = (해당기간 암 발생자의 5년 관찰 생존율) / (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

- 암 환자가 암 이외의 원인(예: 교통사고, 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하여 추정된 5년 이상 생존율 확률

8대 암 종별 5년 생존율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비교에서도 전립선 암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초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앙일보, 2013) 특히 우리나라의 위암 생존율은 67.0%이나, 미국은 2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암질환 중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진 간암과 폐암의 경우 각각 26.7%, 19.7%로 낮은 하지만, 미국은 각각 15.2%, 15.9%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 8대 암 종별 5년 생존율 한국 및 미국 비교

(단위 : %)

구 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한 국	67.0	72.8	26.7	19.7	91.0	76.8	90.2	99.8
미 국	26.9	64.3	15.2	15.9	89.0	67.9	99.2	97.5

자료: 중앙일보(2013.10.7, 한국암환자 생존율 미국 추월)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이 각각 76.8%, 7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지표, 보건복지부 2013) 다음으로 저렴한 의료수가를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으로 들 수 있다. CT나 MRI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경우 검진비용을 비교한 결과 OECD 주요국 중 한국의 비용이 가장 낮은 것 조사되었다(이해중, 2012). 또한, MRI 경우에도 한국이 197달러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080달러로 한국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OECD 주요국의 CT·MRI 검진비용

(단위 : 달러)

구 분	한국	스페인	프랑스	칠레	독일	스위스	미국
CT	54	123	141	184	272	319	510
MRI	197	245	281	478	599	903	1,080

자료: 이해중(2012)

최근 현대인의 발병률이 높은 위, 대장, 맹장 관련 항목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인도 3개국 의료수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의료수가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3% 수준, 인도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맹장수술의 경우 미국은 900만원, 인도는 180만원인데 비해 한국의 평균 의료수가는 30만원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80 ~ 90%나 저렴하다.

<표 15> 주요 항목별 의료수가 3대도시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한국	미국	인도
위내시경	4	100	15
대장내시경	5	160	33
심혈관조영술	14	430	86
관상동맥우회술	350	4,140	830
승모판치환술	180	5,700	1,140
맹장수술	30	900	180
담낭절제술	55	770	160
용종절제술	14	270	54
대퇴골치환술	43	3,700	430
슬관절치환술	50	6,600	710

자료: <http://www.incredibleindiahealthcare.com>

그리고 제왕절개, 수정체소절개, 충수절제술 등 시술을 필요로 하는 항목별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OECD 8개국 비교 결과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해중, 2012) 한국의 제왕절개 평균 의료수가는 1,769달러, 수정체소절개 1,323달러, 충수절제술 2,047달러로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수가가 가장 높은 미국은 제왕절개가 1만 8,460달러, 수정체소절개가 4,694달

러, 중수절제술이 1만 4,010달러로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 의료수가가 최대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의료수가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으로 한류(韓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K-팝, K-패션, K-뷰티 등 일명 ‘K-컬처(Culture)’라 불리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열광하며, 패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입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당시 빌보드차트 2위에 올라 한국 최고의 빌보드 순위로 기록되어 아시아에 머물던 한류를 미국, 유럽, 남미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에 말춤 신드롬을 일으키며 약 1조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 자신들의 음반 전체를 1위에 올리면서 경제적 가치를 싸이를 훨씬 뛰어넘는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코노믹리뷰, 2018)

이 중의 K-팝의 인기는 한류를 다른 장르와 분야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경제 성장과 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류의 발전과정은 한류 생성기, 한류 심화기, 한류 다양화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6> 한류 발전과정

구 분	1기	2기	3기
	한류 생성기	한류 심화기	한류 다양화
기 간	1997~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이후
활동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동남아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남미, 미국
대표적 콘텐츠	HOT,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K-POP (싸이,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자료: 김재하(2010)

한국은행(2013)에 따르면 한류 관련 산업의 경제효과가 크게 증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지⁴⁾가 14년만에 2011년 59억 5,000만달러 적자에서 2012년 26억 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서비스수지 개선은 한류 열풍으로 방한 외국인 여행객이 많아지고 영화, 음악 등 한류 문화상품 수출이 증가한 결과이며, 우리나라가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 증가하여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한류 제2기 시점과 일치해 한류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산업연구원, 2013)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에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류 열풍과 관련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의 확산 속도가 빠르며 매년 안정된 관광객을 가진 나라로 의료한류가 전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관련된 분야 중 향후 체험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의료 및 미용’ 분야를 응답한 비율이 15.3%를 차지하였다. 미용 및 의료분야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치료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큰 건강검진,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 등에 진료를 받고, 그 차액으로 한국의 관광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차이가 존재하여 최근 일본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타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 음악, 드라마 등 한류의 열풍으로 검진센터, 미용 및 성형외과, 피부과 등 한국 의료관광을 찾는 외국인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서비스수지 : 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여행, 통신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보험서비스, 운수 등 외국과 서비스거래에 관련된 수지

제4절 의료관광 성공요인의 선행연구

의료관광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미야(2013)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외국인환자 전국적 유치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기관 알선 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 문제점으로는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미흡, 미등록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존재, 감독기관의 지도관리 미흡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확대, 관련 제도·규정의 정비, 진료서식의 보급과 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상원(2012)은 ‘광주권 의료관광 성공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동남아의료관광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광주권 의료관광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관광의 신뢰도(의료기관 기술수준, 특화된 진료분야)와 이용편리성(의사소통 원활, 국제 홍보마케팅), 서비스 차별화(가격 경쟁력, 연계관광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국제의료관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해 JCI 인증을 받고, 특정부위 질환에 대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마케팅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언론 홍보, 의료진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차별화부분에서는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여수해양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및 천혜의 문화관광자원, 맛깔스런 개미가 살아있는 남도음식을 의료와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제안하였다.

곽대영(2013)의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상품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상품을 경험한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구성요인 만족도의 분야별 차이와 정도를 분석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체험 분야에 따라 전체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으

며, 향후 의료관광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와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서비스 구성요인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체험 분야별 만족도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구성요인 대부분에서 진료과목별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치과의 경우 모든 의료서비스 구성요인에서, 스파는 의료진, 병원시설, 진료절차에서, 한의원은 병원시설 및 진료절차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과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대체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구원(2013)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에서는 국내 의료관광의 문제점을 낮은 인지도와 체계적인 홍보 부족, 유무형 인프라 부족, 통합적인 지원체계 미흡,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강한 규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격진료의 허용,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외국인 병상수 확대, 의료관광 통합 거버넌스체계 및 K-메디슨 브랜드 구축, 중국·중동 환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진료과목 특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창면(2017)는 ‘부산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발전정책에 관한 고찰’에서 주요 타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불법브로커 행위, 안전사고, 과다 수수료 등으로 인해 한국의료에 대한 브랜드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 강화,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상화(2016)는 ‘대구의료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모발이식술, 팔이식술, 국가심장센터 건립, 양·한방 통합의료 활성화 등 대구의 대표 의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타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등 후진국에 나눔 의료지원과 해외연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주한 미군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미군들에게 메디시티 대구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3장 광주 의료관광 현황 및 특징

제1절 광주 의료관광 현황

1. 의료자원 현황

광주광역시 소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말 현재 종합병원 21개소, 병원 75개소, 치과병·의원 607개소, 한방병·의원 392개소, 요양병원 54개소, 의원 899개소 등 총 2,062개소가 개설되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자치구별로는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순으로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7>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구 분	병 원 수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계	2,062	228	517	307	569	441
종합병원	21	3	4	3	5	6
병원	75	6	19	12	23	15
특수병원	4	1	1	-	1	1
의원	899	113	240	122	237	187
치과병·의원	607	56	146	101	170	134
한방병·의원	392	38	98	61	115	80
부속의원	10	3	1	-	3	3
조산소	0	-	-	-	-	-
요양병원	54	8	8	8	15	1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2017.12.)

전국 의료기관과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수 등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대구, 서울에 이어 광주가 세번째이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첫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의료시설 면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2017년도 인구수 대비 전국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구 천만 명 대비 상급종합 병원 수	인구 백만 명 대비 종합병원 수	인구 백만 명 대비 병원 수	인구 백만 명 대비 한방병원 수	65세 이상 인구 십만 명 대비 요양병원 수
전국	8.4	5.8	29.7	5.5	23.9
서울	13.7	4.1	21.8	3.7	9.9
부산	11.3	7.1	39.3	2.8	44.6
인천	10.5	5.3	20.4	6.3	25.5
대구	16	3.2	45.1	0.8	22.6
광주	13.6	13.6	51	61.9	38
대전	6.6	5.9	26.2	3.3	36.4
울산	8.7	5.2	34.9	2.6	53.7
경기	4.1	4.6	23.8	3.6	24.9
강원	6.5	9.1	31.2	1.3	12.8
충북	6.4	7	26.2	3.8	20
충남	9.9	5.4	24.2	2.5	25.2
전북	10.7	5.9	42.2	13.9	27.7
전남	5.2	12	42.4	11	19.9
경북	0	6.7	30.8	1.9	25.6
경남	6	6.9	44.9	1.8	28.2
제주	0	10.3	42.2	0	13.2
세종	0	0	8.8	0	40.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2017.12.)

또한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는 2017년 기준 39,467개이며, 인구수 1,000명 대비 병상수는 26.9개로 전국 1위이며, 서울 8.7개, 부산 20.1개, 인천 11.4개, 대구 14.6개 등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병상증가율 또한 2013년 대비 2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병상수는 의료기관 수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지역보다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19> 2017년도 전국 의료기관 입원실 병상 수 및 증가율

(단위 : %, 개수)

구분	입원실 병상 수					'13년 대비 병상 증가율	인구수 1,000명 대비 병상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83,711	86,006	85,245	86,443	86,666	3.4	8.7
부산	62,445	66,769	66,219	71,173	70,239	11.1	20.1
인천	29,739	31,507	31,484	32,003	33,718	11.8	11.4
대구	33,927	35,140	36,287	36,777	36,329	6.6	14.6
광주	31,086	34,525	37,250	39,140	39,467	21.2	26.9
대전	22,385	23,164	23,730	23,486	23,620	5.2	15.6
울산	13,482	14,428	14,192	15,292	15,585	13.5	13.3
경기	118,519	124,326	127,483	129,541	130,829	9.4	10.1
강원	18,169	18,379	18,547	18,628	17,600	-3.2	11.2
충북	19,720	19,987	20,182	21,243	20,922	5.7	13.1
충남	26,378	26,711	27,456	27,734	28,304	6.8	13.3
전북	35,645	37,413	38,378	39,207	39,596	10.0	21.3
전남	36,856	38,565	40,104	40,714	40,999	10.1	21.6
경북	39,200	41,118	42,973	43,822	44,697	12.3	16.6
경남	54,236	56,126	55,731	61,090	61,416	11.7	18.1
제주	4,616	4,669	4,971	4,924	4,799	3.8	7.3
세종	1,068	1,266	1,229	1,249	1,335	20.0	4.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2017.12.)

하지만 타 시도 대비 병상수와 병상증가율이 전국 1위로 가장 많으나, 전체 병상 중에서 환자가 실제 입원해 있는 병상 수를 나타내는 병상가동률은 72.7%로 전국 10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1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개의 병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입원병상 등 시설공급 과잉에 따른 병상가동률 저하로 광주지역 의료기관에서 국내 환자유치가 과열되고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표 20> 2017년도 전국 의료기관 병상가동률

(단위 : 내원일 수/천, 병상 수/개수, 가동률/%)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원 일수	내원 일수	내원 일수	내원 일수	내원 일수	1일평균 이용 병상수 ⁵⁾	입원실 병상 수	1일평균 병상 가동률
서울	22,150	22,423	22,136	21,522	21,257	63,533	86,666	73.3
부산	17,218	18,533	19,264	18,487	18,504	55,305	70,239	78.7
인천	6,979	7,602	7,832	7,664	7,804	23,325	33,718	69.2
대구	8,955	9,396	9,694	9,488	9,445	28,229	36,329	77.7
광주	8,023	8,862	9,225	9,218	9,597	28,683	39,467	72.7
대전	5,441	5,499	5,675	5,432	5,476	16,367	23,620	69.3
울산	3,611	3,833	3,948	3,732	3,855	11,522	15,585	73.9
경기	28,844	30,497	31,411	30,173	30,432	90,955	130,829	69.5
강원	4,214	4,184	4,167	3,982	3,911	11,689	17,600	66.4
충북	4,637	4,820	4,973	4,722	4,795	14,331	20,922	68.5
충남	6,143	6,391	6,707	6,612	6,671	19,938	28,304	70.4
전북	9,375	10,020	10,315	9,929	9,826	29,368	39,596	74.2
전남	10,128	10,572	10,810	10,184	10,067	30,088	40,999	73.4
경북	10,287	10,708	11,276	10,738	10,886	32,536	44,697	72.8
경남	14,564	15,229	15,705	15,036	15,479	46,264	61,416	75.3
제주	1,234	1,299	1,349	1,284	1,310	3,915	4,799	81.6
세종	270	288	319	344	304	909	1,335	68.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2017.12.)

5) 1일평균 이용 병상수 = [내원(입원)일수]/365×1,000

그리고 광주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총 23,179명으로 의사 3,434명, 치과 의사 969명, 한의사 701명, 약사 1,083명, 간호사 7,192명, 간호조무사 6,531명, 의료기사 3,269명 등으로 조사되었다.(광주시정통계,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인구 1만명 대비 의사수는 전국 평균 19.2명이며, 광주가 23.4명으로 서울 27.6명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하지만 의료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병상수가 많음에 따라 병상수 대비하여 의사수는 8.8%, 간호사수는 18.3%로 전국 12 ~ 13위에 머물러 있다. 병상수 대비 의료인수 지표 의미는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다. 1명의 의사가 많은 입원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CT, MRI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대비 CT장비 수는 광주가 25개로, 서울 29, 부산 28, 대구 27에 이어 네번째로 많으며, 인구 100만명 대비 MRI장비 수는 광주가 4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광주지역은 입원 병상수, 병상 증가율, 병원 수, 고가의료장비 수 등 대부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자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입원병상 등 의료 과잉공급에 따른 병상가동을 저하 등 과포화상태로 환자유치가 과열되고 의료기관의 재정 건정성에도 악화될 수 있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자원 현황

최근 전세계 관광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0 ~ 2016년 기간 중 전세계 해외 여행객 수가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관광수입도 2010 ~ 2015년 중 연평균 5.7%가 상승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은행, 2017)

광주지역은 인구 150만에 달하는 대도시이며, 도시 전역에 걸쳐 산, 강,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 등 타 지역에 비교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상품 부재 등으로 인해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관광목적지로서의 다른 관광목적지에 비해서 계절성이 낮고, 문화관광 및 자원 인프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국 관광관광객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관광관광객 수는 2011년 약 11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이 교차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국내여행이 증가함을 입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1> 지역별 관광총량

(단위 : 천 명)

년도	전국	증감율(%)	서울	증감율(%)	광주	증감율(%)
2010	30,916	-	5,998	-	810	-
2011	35,013	13.2	9,343	55.8	1,767	118.2
2012	36,914	19.4	10,401	73.4	2,125	162.3
2013	37,800	22.3	11,453	91.0	2,115	161.1
2014	38,027	23.0	12,580	109.7	2,263	179.4
2015	38,307	23.9	12,451	107.6	2,135	163.6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810천명에서 2015년에는 2,315천명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 수를 압도하여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최대 관광객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타지역에 비해 크게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남권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 40%가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에는 광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 0.4%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0.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외국인 중 유학생은 73,221명이며, 이중 3,003명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은 2,000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유학생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을 포함한 관광에 몇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광여행 만족도는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전남은 가구 및 개인여행 모두 만족도가 높으며, 광주는 개인여행의 만족도가 높다고 조사되었다.

<표 22> 관광여행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전국	4.04	4.05	4.04	4.03	4.04	4.05
광주	3.85	3.97	3.96	3.96	4.10	4.07
전남	4.06	4.10	4.11	4.08	4.09	4.16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

특히 2016년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관광여행 참가자수와 대비하여 참가횟수는 1.6회로 전국 평균인 1.5회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남지역은 재방문의향과 타인추천의향 수준이 높아 기존관광객 재유치에 강점이 있으므로 광주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교해서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2,413개 관광자원(문화, 자연 및 생태환경, 관광장소, 시설 등) 중 광주전남지역은 348개를 보유하여 전국의 14.4%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화와 자연·생태환경 자원 보유현황을 보면 광주는 문화(2개), 자연·생태(25

개)로 총 2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은 72개의 문화(40개)와 자연·생태(32개) 자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서울 10개, 부산 0개, 대구 4개, 인천 9개 등 타 특·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전국 관광자원 보유 현황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문화	10	0	3	1	2	0	5	37	16	11	20	26	40	49	32	5
자연·생태	0	0	1	8	25	0	8	17	22	13	9	5	32	22	16	8
장소·시설	137	46	46	60	29	19	19	323	254	124	122	119	220	198	134	120
합계	147	46	50	69	56	19	32	377	292	148	151	150	292	299	182	133
비중	61	19	21	29	23	08	13	156	121	61	63	62	121	111	75	55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7.6.)

<표 24> 광주·전남 문화 및 자연·생태자원 현황

문화자원(42)	자연·생태환경자원(57)
(광주) 이장우가옥, 포충사 (전남) 낙안읍성민속마을, 도갑사, 도림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선암사, 소쇄원, 송광사, 운림산방, 진남관, 초의선사유적지, 태안사, 향일암, 흥국사, 강골전통마을, 강진군고려청자도요지, 고산윤선도유적지, 기독교순교지, 금성관, 나주목사내아,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 다산초당, 미력옹기, 섬진강 기차마을, 무창 농촌체험휴양마을, 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송계 어촌체험관광마을, 죽산 농촌체험휴양마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25개소 (전남) 가우도, 공룡발자국화석지, 죽녹원, 가거도, 거문도, 구봉산전망대, 금오도, 내장산국립공원(남창계곡), 도초도, 목포 갯바위, 메타쉐콰리아가로수길, 비금도, 수락폭포, 슬로시티청산도, 신의도, 암태도, 여자만, 오동도, 오산사성암, 옥룡사지 동백나무숲, 용마루길, 임자도, 장산도, 조도, 팔금도, 하의도, 하화도, 함평양서파충류생태공원, 흥도, 화순적벽, 회산백련지, 흑산도

쌍봉사, 영랑생가, 외가집 체험마을, 우수영, 운조루유물전시관, 운주사, 유마사, 윤선도유적지, 전라병영성(하멜표류지), 천연염색공예관, 충의사, 창평슬로시티, 필암서원	
--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7.6.)

남도는 ‘맛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생각나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모두 관광지로 광주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음식·미식 탐방이 1순위로 나타나는 등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음식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관광객 지출 및 소비유입, 숙박관광여행 비중 감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내국인의 광주·전남지역 관광여행 1회 평균 소비지출액은 약 10만원 수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제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관련 관광사업체 매출액 규모 또한 전국 평균 819백만원에 비해 광주는 413백만원, 전남은 240백만원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광주전남지역 숙박관광여행 비중⁶⁾은 제주, 강원, 부산, 대구 등의 수도권 및 주요 관광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관광여행 만족도는 숙박관광이 당일관광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숙박관광 만족도가 당일관광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2015년 전국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 투자비가 11억원인 반면, 광주와 전남 소재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 투자비는 2 ~ 3억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등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은 의료관광객 뿐만아니라 일반 외국인관광객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방문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반 외국인관광객 비율이 광주지역은 2010년 2.6%에서 2013년 1.3%, 2016년 0.5%로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숙박관광여행 비중 = 숙박관광여행 참가횟수/관광여행 참가횟수

<표 25>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중복 포함)

(단위 : %)

구분	2010	2013	2016
서울	80.3	80.9	78.0
제주	13.1	16.7	20.2
부산	15.7	11.7	10.4
강원	11.7	9.2	6.4
광주	2.6	1.3	0.5
전남	2.3	2.1	0.9

자료: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

따라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의료관광과 연계하여야 한다.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도 연평균 28%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광객은 체류기간이 평균 17일이며, 일반 관광객은 체류기간이 5일로 상대적으로 의료관광객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도 크다는 특성이 있으며,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가 다른산업보다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할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관광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6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관광에 대한 주요 변화로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들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3월 4일 국립공원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체면적 75,425km²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와 전남에 걸쳐 위치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8종을 포함하여 총 2,296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 17점이 위치해 있어 자연과 문화경관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으며, 2014년 국내 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의 무등산

권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 137번째, 국내로는 제주도, 청송군에 이어서 세번째로, 무등산권이 수려한 경관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변화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들 수 있다. 2014년 오송부터 광주송정까지의 구간에 대한 KTX 호남선이 완공됨에 따라 2015년 4월 2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관광권 조성, 학술행사, 문화공연의 참여 확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광역 시티투어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KTX와 연계한 광주송정역 인근 전통시장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새 단장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여행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광주 방문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숙박여행객이 감소하고 주말에 무박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민이 수도권 문화소비시장으로 집중하여 지역의 문화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송정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MICE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업무 목적의 비즈니스 여행객도 증가할 수 있어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관광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2018년 광주-김포, 광주-제주, 김포-제주노선을 각각 취항하였다. 에어필립은 2011년 10월 설립되어 사업 초기 자본금이 70억원으로 출범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약 300억원 가량 추정된다고 한다. 2018년 11월 중에서는 무안-인천 노선을 신규 취항할 계획으로 호남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항하는 노선 개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권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 에어필립항공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첫 국제선인 무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도 11월 중 신규 취항할 예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로 2014년 10월에 완공되고, 2015년 9월 부분 개장, 2015

년 11월 완전 개장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뿔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등 총 5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5·18 기념행사, 광주물총축제, 7080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아리랑대축전, 광주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남로 일대에서 문화가 꽃피는 금남로라는 거리문화축제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는 프린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금남로 주변의 문화행사와 축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관광산업은 도시브랜드 제고, 도시경제 활성화,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확립과 관광 목적지로써의 매력을 증진시켜나가 일반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등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광주 의료관광 추진실태

1. 광주 의료관광 정책 및 사례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산업은 최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역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계,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였고, 2011년 1월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1대 회장 범희승)를 설립하고, 그 해 5월 창립식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광주의 선진의료기술 대외 인지도 확산과 국제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 주요 타깃국가들과 의료교류 협력강화,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및 국내 팸투어 등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 역량강화 등으로 2대 윤택림 회장에 이어 2018년 3대 최범채 회장이 취임하여 광주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14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 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되면서 의료관광 예산이 최초 반영되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시엘병원, 조선대치과병원,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청연한방병원 등 여러 기관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까지 5년 연속 참여하여 관절, 심혈관, 불임, 임플란트, 피부미용 등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특화하여 브랜드화 및 세계화를 위해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의료관광객에게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광주지역에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된 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의 상생협력으로 공동 참여하여 선정되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2018년까지 3년 연속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국비 8억원 등 사업비 총 16억원 규모가 투입되었다.

2016년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역의 외국인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

위 조례를 근거로 2017년에는 광주 의료관광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전문적·효율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국제 의료관광 종합 조정 및 지원 전담업무 수행, 의료관광객 및 에이전시 등 광주의료관광 상담안내, 통·번역 등 의료전문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및 국내 팸투어 등 홍보·마케팅 강화, 1:1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연계 지원 등이다.

2018년은 광주광역시청 내 의료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광주광역시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개발도상국 의사를 대상으로 광주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 등 의료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나눔닥터누리 협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연수 의료인력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예산은 2014년 3억원에서 시작하여 2018년 10억여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과 비해 후발주자로 다소 늦게 시작하였지만,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표 26> 2014 ~ 2018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관련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 산	300	371	1,090	681	1,017

자료: 광주시 자료(2014~2018)

그동안 광주시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사례를 통해 성공적 정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여 특화된 의료 관광모델을 개발·육성하고 지역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주시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되었다.

<표 27> 2014 ~ 2018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현황

구 분	사업내용
2014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의료기술 : 전남대학교병원(관절 분야) ○ 관절 치료기술 특성화를 통한 세계 선도화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병원(관절 분야) - 조선대학교병원(심혈관 분야) - 시엘병원(불임 분야) ○ 병원 협력을 통한 우수 의료기술 세계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치과 임플란트 분야) - 맑은피부과의원(피부미용 분야) ○ 치과·피부과 치료와 휴양·문화·체험 등과 연계를 통한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 발굴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치과 임플란트 분야) - 전남대학교병원(뇌혈관 분야) - 청연한방병원(한방 분야) ○ 특화된 맞춤형 치과치료 및 양·한방 연계 치료모델과 교육 프로토콜 개발

자료: 광주시 자료(2014~2018)

광주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 수 전국 1위, 병상수 전국 1위, 의사수 전국 2위, 간호사수 전국 1위, 최첨단 의료장비 다수 보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정보통계) 등 우수하고 수준 높은 의료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참여하여 관절, 심혈관, 불임, 치과 임플란트, 피부미용, 뇌혈관, 한방 등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공모 선정사업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청연한방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특화된 해외환자 맞춤형 치과치료와 교육모듈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양·한방 연계 치료 및 교육 프로토콜을 확대 개발하여 지역 기반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융복합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료관광 동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화의료기술 강화 및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 글로벌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헬스케어 역량 강화, 시스템 및 시설인프라 개선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역량강화, 홍보·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역량 강화 등 4가지 분야 세부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에 ‘ONE-VISIT 치과의료기술 전문화 및 연수프로그램’ 총 35종을 개발 완료하였다.

8개 진료과 10명의 교수진이 교육 모듈 개발에 참여하여 해외 의료진 교육을 위한 영문 교육 모듈 및 세부 강의안을 제작하였다. 교육모듈 개발을 통한 자료는 국제심포지움 및 해외의료진 연수교육 개최 등 다양한 의료교육관광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원격 치과교육 시스템 구축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 교육관광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글로벌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G10 International Dental Education Academy; G10 IDEA)로 상표를 디자인하고, 등록출원을 완료하여 해외의료진 교육 시스템을 브랜드화 하였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단기 체류기간 동안 편안하고 빠르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외환자 맞춤형 치과치료 기술을 브랜드화하여 관련 상표 디자인 및 등록출원을 추가 완료하여 의료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해외환자 맞춤형으로 심미치료, 예방치료, 통증치료 등 3종을 추가 개발하고, 해외의료진의 온라인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치과, 심혈관, 한방 등 양·한방 연계치료 융합형 치료프로토콜을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치과의 심미치료 및 한방미용, 반신욕, 찜질 등 치과-한방 웰니스 치료와 치과의 악관절치료 및 침, 약침, 부항, 도수치료 등 치과-한방 근통증 치료 등이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의료연수를 한방체험, 한방 피부미용 및 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의료교육관광 및 환자치료관광을 병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20 ~ 30%의 환자 수 및 치료비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병원 브랜드 소개 및 홍보, 해외 의료교류 네트워크 구축, 관광, 요식, 숙박, 미용, 힐링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으로 2016년부터 3년연속 공동 참여하고 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은 경증치료와 건강, 휴양, 웰니스, 뷰티, 미용, 템플스테이 등 독특한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여행, 숙박, 통역, 쇼핑 등 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관광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79.8%(보건산업진흥원, 2017)를 차지하여 편중됨에 따라 지역 의료관광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적인 브랜드에 적합한 지역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2017.11.)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중 의료관광 자체 목적으로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74%로 2012년 69.7% 대비 4.3%가 증가하였다. 한국 의료관광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의료기술(34.6%), 한국의료관광 인지도(24.5%), 가격 경쟁력(14.3%), 관광·쇼핑 등 복합서비스(13.7%) 순으로 이며, 치료 후 계획 활동은 쇼핑(23.2%), 자연 및 풍경감상(12.2%), 역사유적지 방문(11.1%), 지방여행(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의료관광은 지역의 우수한 치료 자원과 문화관광의 연계를 강화하여

야 하며, 의료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진단·치료와 힐링 관광을 함께 소비하는 연계된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관련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표 28> 의료관광클러스터 기능별 구성요소

구 분	웰니스(Wellness)	관광(Tourism)	의료(Medica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 (Well-being) • 라이프 스타일 전환 • 행복 증진적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관광객 유치 • 지역 경제 활성화 • 의료+관광 시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 치료 및 예방 • 의료기술 확산 및 지식 창출 • 전통의술 개발 • 경증치료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파와 뷰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피, 향노화, 다이어트, 코스메틱, 마사지, 스파 • 정신수양과 심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가센터, 요양소, 휴양소, 명상원, 템플스테이 등 • 라이프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관리, 웰니스관리 •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통합의료, CAM센터, 만성질환 • 건강 식습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강화, 약선식, 유기농식품, 체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리조트, 콘도, 휴양시설, 의료관광 호텔 •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관광상품, 관광교통시설 • 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벤트, 유적지, 한류문화체험 등 • 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 스키, 요트, 승마 등 •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선음식, 전통식품, 사찰음식, 식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형 및 교정시설, 클리닉 • 재활 및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통증센터 • 전통의료 및 예방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 의료원, 요양원 • 연구 및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협회, 보험회사, Medi/Bio R&D센터,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자료: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정과제로 2013년 3월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이 선정되고, 그해 7월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의료관광클러

스터 사업에 시범지역으로 대구광역시가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다.

대구광역시는 5개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김광석거리, 서문시장, 동성로, 근대골목 등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심형 의료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개소, 55개 선도의료기관 지정, 의료관광 안심보험 운영, 해외홍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여 비수도권 중에서 부산과 함께 의료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융·복합 의료관광클러스터 Pentagon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다. 주요 핵심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 미래도시인 송도, 청라국제도시, 영종, 역사의 보고인 강화도 및 한·중 FTA 시범도시인 중국 위해시를 더해서 5개축을 연결하여 의료관광 벨트를 하나로 구성하는 3+2의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1시간 내의 인천과 인근지역을 묶는 다양한 테마형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의료관광산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에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신규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 부산광역시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협력과제로 공동 유치하여 의료·뷰티·미용과 관광·휴양·웰니스 등 상호 비교우위 자원을 융합하여 서로의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 시대에 광주와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을 위한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와 다양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광주·전남은 웰니스 관광자원을 타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봉계온천, 낙안온천, 성황온천, 지리산온천, 화순온천 등 14개소가 있으며, 증심사, 무각사, 불갑사, 백양사, 쌍계사 등 템플스테이가 18개소가 있다. 또한 가고싶은 섬으로 금오도, 돌산도, 우도, 증도, 입자도 등 2,200여개가 있다. 이 중 여수 금오도,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는 연간 30 ~ 70만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가 높은

섬이다. 또한, 치유의 숲으로 불리는 축령산, 억불산, 지리산, 제암산, 만연산 등 18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등산의 O₂ 힐링로드, 뷰티 관련 대학 및 업체 인프라, 통합의료센터, 명상원 등 다양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제정되었고, 2016년 6월 시행되었다. 그리고 법률 제정됨에 동시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광주·전남지역 유치 의료기관, 에이전시, 숙박업체, 관광업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순환형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총 3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회를 설립하였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산업 조정·기획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통역, 번역, 차량지원, 의료기관 예약, 관광 및 숙박 안내 등 의료관광의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의료관광객에게 광주지역까지 차량 픽업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유치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전문 코디네이터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권별로 양성하고,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가 외국인환자 방문시 요청하면 무료로 전문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인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광주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의료관광 플랫폼을 분야별로 구축하고 있다.

앞서 말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광주 관광안내소를 활용하여 관광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광주의료관광 안내소를 공동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홍보·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의료관광안내소는 광

주송정역, 버스터미널, 광주역, 광주공항,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등 광주시 주요 관문로 및 관광지에 총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의료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윈스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의 현지 사전상담부터 출국 후 사후관리 등 외국인환자 유치 토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8월 몽골에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의료관광 해외홍보사무소를 개소하여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러시아에도 추가적으로 개소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홍보사무소에는 광주의 우수한 의료자원과 웰니스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광주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통계에 따르면 2017년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2,105명으로 상위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의료관광 주요 타깃국가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정하여 신항 의료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및 현지 에이전시 등을 국내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는 유치의료기관, 에이전시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의료관계자,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설명회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의료기관 및 특화의료기술을 소개하고, 의료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병원 및 의과대학과 의료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진 의료기술 세미나 개최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방문지역으로는 2016년에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2017년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2017년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으로 주요 국가를 집중 공략하여 광주의료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로는 해외 의료인 나눔 연수를 통한 의료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희망나눔닥터누리 협력사업으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천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의사를 대상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의료연수 프로그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모를 거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시엘병원 등 총 5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민·관 협업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희망나눔닥터누리 협력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단기적인 한·몽, 한·러 프로젝트보다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견인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더욱 가깝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 국제협력처의 한국 재건 원조 프로그램으로 1955년 미국 정부가 한국 의사를 지원하여 미네소타대 의대에 파견되었다. 첫 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2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 파견 연수를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의학이 단기간에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로 미국의 해외 교육 원조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 사례가 뽑히고 있다. 광주시 추진사업은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 등 총 11개국 30여 명의 의사들을 초청해 광주의 뛰어난 의료진과 함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향후 연수생은 의료기술 전도사로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의료관광객 유치 및 의료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의료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사업 및 아젠다 발굴과 연계 지원을 통해 광주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지역특화의료기술 육성사업,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해외 의료인 나눔연수 등 최근 의료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의료관광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전국대비 0.6% 규모로, 광주와 관광여건이 비슷한 대구시는 6.8%, 대전시는 2.7% 수준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3위와 4위이지만, 광주로는 거의 방문하지 않아 그 원인과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물론 외국인환자가 광주지역으로 오기 위한 교통편은 타지역에 비해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외국 현지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 광주지역까지 다시 비행기로는 50분, KTX는 1시간 40분, 버스로는 3시간 40분정도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의료관광객을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경기, 인천, 대구가 아니라 호남권인 광주로 어떻게 방문하게 할 것인지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2. 광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2016년 36만 4,189명 대비하여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거론되는 외국인환자란 한국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아래 표의 ①번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거나 ②번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환자를 말한다.

<표 29> 외국인환자 정의

구 분	요 건
①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 외국인(단, 국내거소 신고자 제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②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자료: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실무(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2009년에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만 201명으로 시작하여 2016년 36만 4,189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중국 사드사태⁷⁾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현지 에이전시와 교류가 중단되어 중국인 외국인환자가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루블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CIS(독립국가연합)⁸⁾ 국가 환자가 러시아 의료시장으로 유입되어 2017년 상반기 CIS국가 환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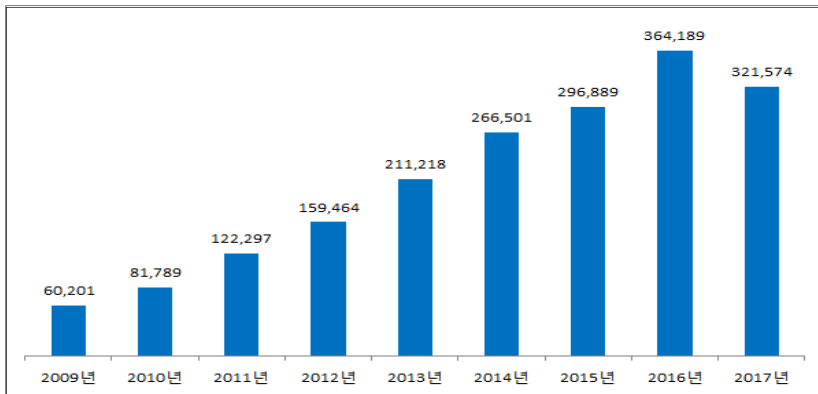
7) 중국 사드사태 : 중국 정부 측의 한국 관광객 송출금지 및 현지 에이전시와 교류 중단 발생

8) CIS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0개국)

60% 증가(러시아 의료관광협회, 2017.11.)하는 등 CIS국가 환자가 감소됨에 따라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최초로 감소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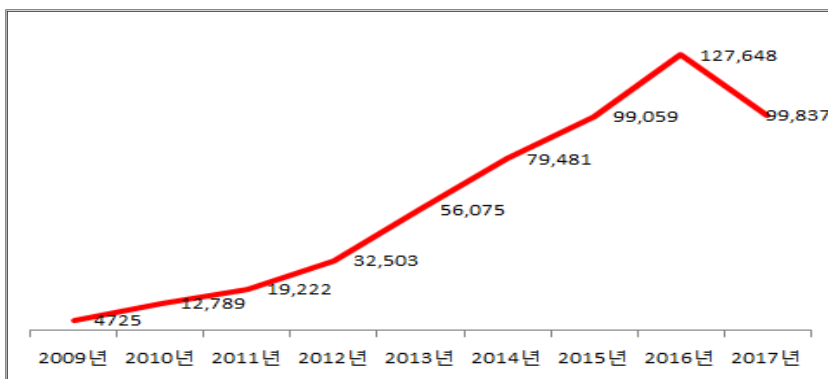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4.19.)

특히, 중국인 환자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2017년 3월부터 중국 전체 방한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대비 48%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환자 수는 2016년 22% 감소한 10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3> 연도별 중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4.19.)

외국인환자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63%인 20만 2,248명을 유치하여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외국인환자가 79.8%가 집중되는 반면, 광주는 전국 외국인환자 수 대비 0.6%를 유치하여 지역별 차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0> 2010~2017년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 특별시	50,490 (61.7)	77,858 (63.7)	99,422 (62.3)	133,428 (63.2)	154,816 (58.1)	165,689 (55.8)	216,657 (59.5)	202,248 (62.9)	△ 6.6
경기도	10,913 (13.3)	17,092 (14.0)	19,347 (12.1)	25,673 (12.2)	39,990 (15.0)	56,603 (19.1)	55,112 (15.1)	39,980 (12.4)	△ 27.5
대구 광역시	4,493 (5.5)	5,494 (4.5)	7,117 (4.5)	7,298 (3.5)	9,871 (3.7)	12,988 (4.4)	21,100 (5.8)	21,867 (6.8)	3.6
인천 광역시	2,898 (3.5)	4,004 (3.3)	6,370 (4.0)	10,432 (4.9)	17,701 (6.6)	16,153 (5.4)	12,992 (3.6)	14,572 (4.5)	12.2
부산 광역시	4,106 (5.0)	6,704 (5.5)	9,177 (5.8)	11,022 (5.2)	13,717 (5.1)	13,028 (4.4)	17,505 (4.8)	13,555 (4.2)	△ 22.6
대전 광역시	1,693 (2.1)	1,963 (1.6)	5,371 (3.4)	5,476 (2.6)	7,047 (2.7)	8,096 (2.7)	10,897 (3.0)	8,584 (2.7)	△ 21.2
제주특별 자치도	720 (0.9)	740 (0.6)	1,752 (1.1)	2,952 (1.4)	5,236 (2.0)	4,552 (1.5)	6,666 (1.8)	4,947 (1.5)	△ 25.8
충청북도	303 (0.4)	386 (0.3)	491 (0.3)	813 (0.4)	2,333 (0.9)	2,714 (0.9)	4,048 (1.1)	3,674 (1.1)	△ 9.2
경상북도	407 (0.5)	517 (0.4)	1,066 (0.7)	1,561 (0.7)	3,403 (1.3)	2,267 (0.8)	4,252 (1.2)	2,597 (0.8)	△ 38.9
전라북도	1,909 (2.3)	2,104 (1.7)	2,194 (1.4)	2,228 (1.1)	2,590 (1.0)	3,935 (1.3)	3,889 (1.1)	2,402 (0.7)	△ 38.2
광주 광역시	989 (1.2)	1,118 (0.9)	1,648 (1.0)	1,900 (0.9)	1,850 (0.7)	2,744 (0.9)	3,531 (1.0)	2,105 (0.6)	△ 40.4

충청남도	997 (1.2)	1,367 (1.1)	1,715 (1.1)	2,936 (1.4)	2,965 (1.1)	3,552 (1.2)	2,164 (0.6)	1,440 (0.4)	△ 33.5
경상남도	354 (0.4)	556 (0.5)	646 (0.4)	749 (0.4)	965 (0.4)	1,180 (0.4)	1,400 (0.4)	1,183 (0.4)	△ 15.5
울산광역시	614 (0.8)	782 (0.6)	925 (0.6)	1,086 (0.5)	1,116 (0.4)	1,087 (0.4)	1,264 (0.3)	1,175 (0.4)	△ 7.0
강원도	567 (0.7)	1,349 (1.1)	1,498 (0.9)	2,925 (1.4)	2,523 (0.9)	1,699 (0.6)	2,401 (0.7)	1,110 (0.3)	△ 53.8
전라남도	336 (0.4)	263 (0.2)	725 (0.5)	739 (0.4)	378 (0.1)	602 (0.2)	311 (0.1)	135 (0.04)	△ 56.6
합 계	81,789 (100.0)	122,297 (100.0)	159,464 (100.0)	211,218 (100.0)	266,501 (100.0)	296,889 (100.0)	364,189 (100.0)	321,574 (100.0)	△ 11.7

* 실환자 : 의료기관을 방문한 1명의 환자 수 (복수 진료과 · 방문 미포함)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광주만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의 기초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2018.10.)를 토대로 하였으며, 유치 의료기관 현황, 진료유형별 현황, 내국인 대비 외국인환자 비율,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 성별·연령별 현황, 국가별 현황, 진료과별 현황, 진료수입 현황 순으로 분석하였다.

1) 유치 등록기관 현황

2018년 9월 30일 기준 광주시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1개소이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20개소로 전국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2%, 유치업자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일정한 요건⁹⁾을 갖추

9) 의료기관 : 전문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병원급 1억원 ·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등록갱신제 시행으로 광주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현황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항목은 환자 기본정보, 식별정보, 유치경로, 진료정보 등으로 보고된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수 통계가 최종 집계되므로 유치 등록기관 수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 등록기관에서 정확한 유치실적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유치 등록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 인원수를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특·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유치 등록기관 비율(1.8%)에 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인원수(0.6%)가 적은 수치로, 이것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비해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이어지는 것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외부적으로 열악한 접근성, 광주의 낮은 인지도 등이 있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상품 및 특화 의료기술 등 기관의 국가경쟁력과 의료코디네이터 부재 등 의료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 2018년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의료기관		유치업자		계	
	개소	(%)	개소	(%)	개소	(%)
서울	1,090	(58.6)	1,016	(65.6)	2,106	(61.8)
부산	169	(9.1)	88	(5.7)	257	(7.5)
대구	94	(5.1)	55	(3.6)	149	(4.4)
인천	70	(3.8)	52	(3.4)	122	(3.6)
광주	41	(2.2)	20	(1.3)	61	(1.8)
대전	41	(2.2)	14	(0.9)	55	(1.6)
울산	16	(0.9)	5	(0.3)	21	(0.6)
경기	178	(9.6)	204	(13.2)	382	(11.2)
강원	10	(0.5)	9	(0.6)	19	(0.6)

유치업자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사무소 등

충북	30	(1.6)	23	(1.5)	53	(1.6)
충남	16	(0.9)	12	(0.8)	28	(0.8)
전북	20	(1.1)	4	(0.3)	24	(0.7)
전남	20	(1.1)	9	(0.6)	29	(0.9)
경북	11	(0.6)	3	(0.2)	14	(0.4)
경남	21	(1.1)	11	(0.7)	32	(0.9)
제주	34	(1.8)	24	(1.5)	58	(1.7)
세종	0	-	0	-	0	(0.0)
계	1,861	(100.0)	1,549	(100.0)	3,410	(100.0)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또한,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6만 6,307개소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1,664개소로 2.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살펴보면, 총 2,062개소 중 41개소로 1.98%의 등록률을 차지하고 있어, 등록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료유형별 현황

진료유형에 따른 2017년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외국인 실환자는 입원 205명, 외래 1,236명, 건강검진 664명으로 각각의 비율은 입원은 9.7%, 외래는 58.7%, 건강검진은 31.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6년 대비 40.4%가 감소한 수치이다.

<표 32> 광주광역시 진료유형별 외국인 실 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입원		외래		건강검진		계	
2009년	186	67.9	88	32.1	* 외래 합산		274	100.0
2010년	156	15.8	707	71.5	126	12.7	989	100.0
2011년	183	16.4	858	76.7	77	6.9	1,118	100.0
2012년	278	16.9	1,214	73.7	156	9.5	1,648	100.0
2013년	285	15.0	1,406	74.0	209	11.0	1,900	100.0

2014년	344	18.6	1,415	76.5	91	4.9	1,850	100.0
2015년	360	13.1	2,252	82.1	132	4.8	2,744	100.0
2016년	403	11.4	1,956	55.4	1,172	33.2	3,531	100.0
2017년	205	9.7	1,236	58.7	664	31.5	2,105	100.0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싱가포르, 태국 등 대부분의 의료관광 주요국가에서는 외국인환자 수를 실환자가 아닌 연환자 수¹⁰⁾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외국인환자 기준을 좁은 의미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거주 외국인 및 스파, 마사지 등 휴양 방문객까지 외국인환자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간 단순한 비교는 부적절하다.

광주시의 2017년 외국인 연환자수는 5,936명으로 2014년 1만 163명, 2015년 1만 446명, 2016년 1만 1,554명에서 48.6%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11.7%가 감소한 가운데 인천시와 대구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광주가 유독 감소한 이유는 중국 사드사태와 러시아 루블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러시아 의료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7년 6월부터 기존에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광주지역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아 비용에 부담을 느낀 유치 의료기관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7년초에는 유치의료기관 67개소, 유치업자 21개소에서 2017년말에는 유치의료기관 33개소, 유치업자 16개소로 유치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표 33> 광주광역시 진료유형별 외국인 연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실 환자	진료과별 실 환자	연 환자
----	------	-----------	------

10) 연환자 수 :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외래진료와 입원을 한 경우 모든 진료일수 및 입원기간을 합산한 환자의 수

2009년	274	274	1,680
2010년	989	1,211	3,629
2011년	1,118	1,210	3,227
2012년	1,648	1,911	5,898
2013년	1,900	2,294	7,169
2014년	1,850	2,160	10,163
2015년	2,744	3,141	10,446
2016년	3,531	3,959	11,554
2017년	2,105	2,543	5,936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3) 내국인 대비 외국인환자 비율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을 진료하는 것과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내국인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비율을 전국과 광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2017년 진료받은 실환자는 47,907,953명이며, 연환자수는 1,032,636,459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 실환자수는 32,574명으로 국내 환자수의 0.67% 수준이며, 외국인 연환자수는 815,112명으로 국내 연환자수의 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국인 실환자는 1,379,755명, 연환자수는 29,909,172명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시의 외국인 실환자수가 2,105명으로 국내 환자수의 0.15%이며, 연환자수는 0.019% 수준으로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광주시는 내국인과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4)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종별로 분류해보면, 상급종합병원 944명, 종합병원 292명, 병원 353명, 치과병원 71명, 한방병원 214명, 의원 2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율로는 상급종합병원 44.8%, 종합병원 13.9%, 병원 16.8%,
 치과병원 4%, 한방병원 10.2%, 의원 11% 정도이다. 전국의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28%, 병원 9.8%, 한방병원 2% 등으로 광주시는 상
 급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한방병원의 강점이 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
 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상급	종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계
2009년	140	7	53	67	0	7	274
2010년	606	33	252	50	31	17	989
2011년	409	20	399	181	0	109	1,118
2012년	728	6	589	236	0	89	1,648
2013년	811	32	797	195	11	54	1,900
2014년	808	3	948	30	24	37	1,850
2015년	1,212	24	856	92	423	137	2,744
2016년	1,773	592	631	144	187	204	3,531
2017년	944	292	353	71	214	231	2,105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5) 성별·연령별 현황

2017년 광주광역시의 외국인환자 성비는 남성 47.5%, 여성 52.5%로 여성이
 남성보다 광주를 많이 방문하였다. 남성의 비중은 2009년 36.5%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중은 2009년 63.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은 55명, 20대 593명, 30대 715명, 40대 322명, 50대 260
 명, 60대 이상 140명으로 20~30대의 환자 비중이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
 어, 노년층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방문 목적보다는 젊은 층의 건강검진, 한방,
 성형·피부과 등 가벼운 질환의 진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국가·진료과별 현황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일본,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461명(21.9%)으로 매년 가장 많은 수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을 타깃으로 한 의료기관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환자는 2016년 812명대비 2017년도에 많이 감소한 이유는 한·중 간 정치적 요인인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 측에서 한국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송출 금지시키고, 현지 에이전시와 교류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사드보복 완화조치로 해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다시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 월곡동에 고려인마을이라 불리울 정도로 고려인들의 집단거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고려인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4,44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합하여 우즈베키스탄이 2,42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234명, 한국계 러시아 819명,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방문취업(H-2), 동포비자(F-4), 방문동거(F-1)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표 3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주민 현황 추정

(단위 : 명)

총계		등록외국인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소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계러시아	기타	소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계러시아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440		2,869		1,907	584	7	371	1,571		518	176	812	65								
2,434	2,006	1,603	1,266	1,052	855	339	245	5	2	289	82	831	740	268	250	107	69	424	388	32	33

※ 본 자료는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수입(2017.12.기준)

자료: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지역별 현황(2018)

이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와 광주시 간 의료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고려인 지인들의 추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외국인환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6>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명)

순위	국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수	비중
1	중국	468	495	410	594	812	461	21.9
2	미국	157	188	148	192	352	157	7.5
3	몽골	70	89	197	251	254	154	7.3
4	카자흐	11	6	8	18	108	153	7.3
5	우즈벡	24	48	45	61	433	140	6.7
6	베트남	148	121	121	158	249	133	6.3
7	러시아	25	33	32	42	70	120	5.7
8	일본	159	157	132	97	152	56	2.7
9	캐나다	44	38	36	48	124	48	2.3
그 외 국가		542	725	721	1283	977	683	32.4
계		1,648	1,900	1,850	2,744	3,531	2,105	100.0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2017년 광주광역시의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은 검진센터 694명, 한방통합¹¹⁾ 422명, 내과통합¹²⁾ 224명, 산부인과 198명, 안과 170명, 피부과 148명, 신경외과 127명, 정형외과 116명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진센터와 한방통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과통합과 산부인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국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순으로

11) 내과통합 : 일반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 신장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하여 실적집계

12)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침구과, 한방소아과 등 포함

중국을 타깃으로 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 반면, 광주의 경우 성형·피부과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부재 등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다.

8) 진료수입 현황

광주지역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총 진료수입 금액은 16억원으로 전국 수입액 6,399억원 대비 0.3%를 차지하고 있다. 진료수입은 2016년 66억원과 비교하였을 때 약 75%가 감소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인원 수 감소와 더불어 진료수입 또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당 평균진료비가 199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광주지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의료기관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표 37> 광주광역시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진료수입	428,766	661,727	167,256
1인당 평균진료비	156	187	79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내국인환자 대비 외국인환자의 진료비를 전국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내국인환자의 총 진료비는 69조 3,352억원, 외국인환자의 총 진료비는 6,399억원이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0.92%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내국인환자는 145만원, 외국인환자는 199명으로 내국인환자보다 외국인환자의 진료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2015 ~ 2016년에는 외국인환자가 내국인환자 평균진료비를 상회하였지만, 2017년 기준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79만원으로 내국인환자 146만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8> 2017년 내국인환자 대비 외국인환자 진료비 비교(전국)

구분	내국인환자	외국인환자	내국인 대비 외국인(%)
총 진료비(억원)	69조 3,352	6,399	0.92
실환자 수(명)	47,907,953	321,574	0.67
1인당 평균 진료비(만원)	145 (광주 146)	199 (광주 79)	137.5

자료: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건강보험공단, 2018)

정부에서는 의료관광 육성정책과 더불어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2015)에 따르면 향후 실제로 광주지역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와 지출금액이 증대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Inter-regional Input Output Tabl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광주지역에 의료관광객을 35,000명 유치할 경우 외국인환자는 1,315억원, 동반인은 992억원이 광주지역에 지출된다고 분석하였다.

동반인은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1.69명으로 산출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로는 지식기반서비스업¹³⁾,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1,6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13억원, 일자리 고용창출효과는 3,126명이 추정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전반적으로 광주지역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평균 17일로 일반관광객의 체류기간인 5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지출비용도 크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커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의료관광 관련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성공사례, 광주광역시 의료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선행연구, 의료관광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블루오션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13)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통신, 과학기술, 복지, 보건, 금융, 교육, 사업지원 등

제4장 광주 의료관광 성공적 정착 방안

제1절 광주 의료관광 문제점

최근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외국인 환자는 2009년 274명에서 시작하여 2016년 3,531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17년에는 2,10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중국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가 2016년 대비 48% 급감하여 중국인 환자 수가 감소하였고, 러시아 루블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CIS 국가의 환자가 러시아 의료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등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80%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의료관광 산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 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사업인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2017년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2018년 의료관광 전담부서 신설, 광주시의 의료관광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지역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의사수,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 주요 의료장비 수 등 의료자원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지만, 과포화 상태로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KTX 호남선과 SRT 개통 이후 광주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지만, 고속철도 정차역과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교통망은 미흡한 상황이며, 시내면세점과 관광숙박시설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도 접근성 부분에서 다행인 점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협약하였고, 현재 5개국 주25회 운행하는 정기 노선을 7개국 45회로 증가할 예정이며, 저가항공사들의 동남아, 러시아 노선을 신규 취항

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및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 추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의료관광의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광주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쟁 도시들에 비해 미흡한 실적의 원인 분석과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 제약

싱가포르, 태국, 인도가 의료관광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활한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나라로 외국인환자가 해당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으며, 태국은 22개의 외국어 통역서비스와 14개 언어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상당수 존재하여 의사소통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기존의 선행연구 박상원(2012)에서에서도 외국인환자들이 의료관광을 선택할 경우 그 나라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하면서 언어능력이 필요한 인력양성이 요구되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종철(2009)은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출을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에서 대구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관광객과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

연계서비스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관광객의 불편사항으로는 통역 및 의사소통 불편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질병과 관련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의료관광 서비스는 환자가 타국의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비스산업으로 서로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지역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에서 국제메디컬센터 등 의료관광 전담부서를 가지고 주요국별 전문코디네이터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시엘병원 등 극히 일부로 병원 자체적인 전문코디네이터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시엘병원의 경우 의료관광산업 초기부터 다문화가정 여성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자체적인 외국인환자 진료관리시스템을 구성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몽골에 현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등 의료관광의 지역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광주시에서 양성하고 있는 의료통역 인력을 외국인환자가 방문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통역 인력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관광 배경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일정을 환자 입장에서 진행해야할 뿐만아니라 의료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의료와 연계한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외국인환자의 사전상담,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대다수의 외국인환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는 광주지역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2. 소수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참여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4.8%, 종합병원 13.9%, 병원 16.8%, 치과병원 4%, 한방병원 10.2%,

의원 11%로 전국적인 통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1%인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의 외국인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와 인구수 대비하여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으며, 의사 수 또한 서울 다음으로 많다. 풍부한 의료자원에 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적고, 등록된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중에서도 실제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을 투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

3. 광주 의료관광 상품 부재

광주에서 의료관광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사업은 주로 협의의 의료관광 개념인 외국인환자 유치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참여하여 관절, 심혈관, 불임, 치과, 피부미용 등 여러 분야의 특화의료기술을 개발 육성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에 2016년부터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이란 비전으로 공동 참여하여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의료관광 상품 개발, SNS 연계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 관련 인프라와 의료상품 개발 추진,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광주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경우 광주의 대표 관광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13송정역시장, 무등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카페거리, 프린지페스티벌 축제 등과 연계한 상품 정보를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근 전남까지 연계한다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개의 문화자원과 32개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이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광주시에서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관내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가 의료관광객 방문시 신청하면 의료서비스의 통역과 인근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료진 등 관계자는 많지 않다.

의료진들은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웰니스 관광 등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 관광, 문화, 힐링 상품이 있더라도 의료와 웰니스 관광 간 연계 동기가 부족하다고 한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다른 웰니스 서비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자칫 치료의 부작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나 수익적으로 병원 차원에서 추가적인 웰니스 서비스나 관광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병원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유치업자나 여행업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6)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관광객은 단기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관동대 산학협력단 2013)의 강릉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외국인환자의 평균 국내 체류기간은 1주일 미만이 46%, 2주일 미만이 28%, 5주일 이상이 19.3%로 의료관광객의 절반 정도가 단기체류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가 느끼는 의료관광객 유치 애로사항으로 국내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미흡이 각각 24.7%, 34.0%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에이전시 주도의 유치 구조와 불만이 많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보고한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유치한 환자 수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87%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가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향신문 언론보도자료(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경우 재방문의사가 없음이 80%에 달하는 등 한국 의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및 사전창구가 매우 부족하고, 의료관광객과 에이전시 간 유치 수수료, 정보 비대칭에 따라 한 곳으로 몰아주는 풍토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4. 광주 의료관광 낮은 인지도 및 홍보전략 미흡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처가 ‘선진의료기술’ 중심의 보건복지부와 ‘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 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는 주로 ‘외국인환자’라는 용어를 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의료관광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료관광 관련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계 및 협력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준높은 의료기술 수준, OECD 주요국가 대비 20 ~ 60%의 저렴한 진료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한류 열풍의 국가인지도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브랜드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부서도 부산과 대구는 의료산업 관련부서에 속해 있는 반면, 광주를 포함하여 인천과 대전은 건강관련 부서에 있고, 관광과에 속해 있는 도시도 있어 지자체별 산별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임에 따라 차별화된 의료관광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광주와 전남이 선정되면서부터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은 대부분 2009년부터 지역별 의료관광 세부계획 수립 및 의료관광 브랜드를 확립하고, 시·청 내 의료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빨리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두주자로 발전할 수 있었다. 광주의 경우 이들 도시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리스크가 많고 추진 초기 많은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의료관광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의료 신흥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는 종합병원 및 병원 수, 병상수, 의사수 등 의료자원 인프라가 풍부하고, 관절, 심혈관, 불임, 치과 분야 등 의료기술도 우리나라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의료관광에 대한 해외 인지도는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의료관광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를 위해 2017년 ‘메디웰광주’ 라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주요 타깃국가를 선정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와 함께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를 연 2 ~ 4회 개최하고 있으며, 현지 의료인 및 에이전시를 광주지역으로 초청하여 선진 의료기술 및 관광 체험 등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나, 광주시 주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설명회 및 팸투어 행사를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방한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2016)에서 수도권 외에 다른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 이용가능 관광상품 부족 15.2%, 관광정보 습득의 어려움 14.4%, 관심 없음 14.1%, 부적합한 관광환경 12.5%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역량과 관광상품이 부족하다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미디어 등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해외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인터넷 환경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관광산업은 날로 성장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광주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홈페이지 구축 현황을 보면 극소수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조차 없거나 전용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찾기가 매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제2절 광주 의료관광 성공적 정착 방안

1.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적 교육

의료관광은 국제의료서비스 분야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서비스 분야보다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의료인력 외에 의료통역, 국제간호사, 병원국제마케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진료서비스 지원,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의료 연계 관광서비스 지원, 통역 및 번역, 의료관광 마케팅 등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고용은 대부분 '질 좋은 일자리'로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17)

의료관광은 수준높은 의료기술과 함께 환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인식 차이와 의료 및 진료문화가 상이하어 의료관광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환자를 의료인이 대부분 간병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보호자가 간병을 하고 있으며, 주치의 개념이 부족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는 등 외국인환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광주지역 의료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외국인환자의 가장 불편한 요인이 의사소통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초기 재정 투입이 많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의료기관이 직접 전문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면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실천하기에는 인적·재정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채용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의료관광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제병원 관리, 의료서비스 디자인 등 100여개 이상

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인적자원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의료인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엘병원, 청심국제병원 등과 같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한 의료기관의 공통점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의료인 및 코디네이터를 발굴하여 교육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인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거나 양성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의료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권 62명의 의료 통역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대구시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전담 전문인력이 대형병원은 평균 5명, 병원급 1.4명, 의원급 1.3명, 미보유 11개 기관 등으로 상당히 많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시 예산으로 의료기관 10개 기관, 에이전시 5개 기관에 전문인력 자체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유치기관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유치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기 많은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전문인력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평가체계 내에서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의료진이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참여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추가로 외국인환자 유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통역 인력의 병원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치료행위에 대한 언어소통능력 등의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진료와 더불어 인근 관광, 문화, 힐링 등과 연계한 상품을 기획하는 웰니스 의료관광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사, 리조트, 호텔 등 관광관련기업, 의료기관, 지자체, 웰니스 관련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2.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광주지역은 소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의 많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지역은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에 비해 등록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는 대구시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병원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소수 의료기관이 아닌 다양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추진 중인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대부분 종합병원 등 큰 규모의 의료기관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형 병원은 의료관광모델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관광 전문가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국제기준 인증 병원을 확대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갤럽(2016)의 의료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시 주요 고려 요인으로 의료진 기술력이 67.2%, 의료시설 환경 47.8%, 의료비용 36.6%로 조사되었으며, 이 조사는 비용적인 측면보다 전반적인 의료기술의 수준을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역의 국제인증(JCI) 취득 의료기관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1개 의료기관만 존재 하며, 전국으로는 26개 의료기관 이 지정받고 있다.(JCI 홈페이지) 서울 8개, 부산 7개, 대구 5개, 경기 4개 등으로 특히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등 중소병원이 많이 포함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JCI 인증에는 상당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증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 시스템(Peace-Of-Mind, POM) 도입을 광주시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90일간 1:1 후속관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치료 후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이때 재방문의 치료 일정 조율과 재방문 시 치료하는 때 부터 출국할 때까지 항공, 숙박, 체류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018년 13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도 외국인환자의 광주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자체 및 유치기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제도 정착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면 광주지역의 소수 대형 종합병원뿐만아니라 중소형 의료기관도 미래먹거리인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3. 광주만의 특화된 브랜드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의료관광은 질병의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문화활동·휴양·레저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를 의미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건강·힐링’을 연계하는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을 포괄하여 보건관광(Health Tourism)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의료관광의 트렌드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즉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건강관리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대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의 스파, 인도의 요가 등과 같이 의료와 연계한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지역의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의료기술과 함께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뷰티, 스파, 자연숲치유, 정신수양, 심신관리, 식습관개선 등 광주·전남의 천혜의 웰니스 자원과 한국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문화, 맛깔스러운 남도음식 등과 연계시켜 독창적이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의료관광 선도도

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광주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선정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관절분야, 2016년에는 관절, 심혈관, 불임 분야, 2017년에는 치과 임플란트와 피부 미용분야, 2018년에는 치과임플란트, 뇌혈관, 한방분야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화의료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료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광주 타이타늄센터 구축을 발판으로 치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그결과 2002년 단 2개의 기업과 2억원에 불과한 매출액이 2017년에는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155개사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증가하여 2,274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가 개소하여 덴탈헬스케어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3D가공기술 등 관련분야의 산업기반이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치과산업과 연계하여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계획에 있어, 치과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임플란트 등 치과 기자재는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으로 광주 치과 기자재 사용에 따른 타 국가, 타 도시보다 질 높은 의료기술 및 인프라 구축, 저렴한 가격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병원 플랫폼 기반으로 제품 개발부터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광주만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관광 주요 선진국가 중 하나인 헝가리를 예로 들 수 있다. 헝가리는 유럽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저렴한 치료비로 유럽 1위, 세계 4위의 치과의료관광국으로 확고한 위상을 자리잡고 있다. 헝가리는 의료인력 대부분이 유럽에서 공부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인구 14명당 치과의사 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치과 의료기술과 더불어 고성방문, 온천여행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상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매년 6 ~ 7만명이 2억 4천만 유로를 지출하고 있는 헝가리는 치과 특성화 의료관광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광주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광주만의 관광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며,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의료와 연계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 예향 광주의 전통문화예술, 미향 광주의 맛깔스런 음식에 전남의 천혜의 자원을 결합시켜 이를 상품화하고 브랜드화·산업화해서 광주만의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¹⁴⁾으로 인증된 무등산,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 플랫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사적지, 세계 5대 비엔날레¹⁵⁾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주 비엔날레, 남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김치축제, 근대문화의 보고인 양림동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형의 콘텐츠와 함께 시 무형문화재 제8호인 광산농악,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 광주가 낳은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선생,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퇴계 이황과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 “을 논한 기대승(광산구 월봉서원에 위패 모심)의 선비정신 등 무형의 자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력 자원을 활용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위해 광주의 관광 브랜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과의 상생과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함께하는 광역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하다. 광주의 자산과 전통문화를 잘 엮어서 상설공연화 등 볼거리를 확대하여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에는 5미(味)로 한정식, 떡갈비, 김치, 오리탕, 무등산 보리밥 등을 과거부터 지정하였다.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은 관광객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훌륭한 매력적인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반면에 상향 평준화된 음식맛으로 전주하면 비빔밥처럼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광주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음식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이미지화 해야 한다. 이렇게 관광이 활

14)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2018.4.)

- 세계적으로 137번째, 국내 3번째(제주도, 경북 청송, 광주광역시)

15) 5대 비엔날레 : 베니스, 독일 카셀 도큐멘타, 휘트니, 마니페스타, 광주비엔날레

성화됨과 동시에 의료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MICE 산업 연계 용·복합 의료상품, 해외관광객 대상 야간·주말 진료 상품, 진료비 지출규모가 가장 큰 중동국가 등 VIP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상품, 외국인환자 동반자 대상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등 분야 및 대상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중증치료, 요양, 건강검진, 모발, 성형·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광주와 전남지역의 뷰티, 스파, 마사지, 해수치료, 물리치료, 기치료, 아로마테라피 등과 결합하여 표준화되고 검증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건강(Health), 스파(Spa), 관리(Treatment), 휴식(Relaxation), 서비스(Services), 돌봄(Care) 등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뜨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노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의 웰니스 관광¹⁶⁾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광주는 1곳(뷰티스파분야-편백나라 효소궁), 전남은 2곳(자연숲치유-순천만국가정원, 정남진 편백숲우드랜드)이 선정되었다. 편백나라 효소궁은 도심 속의 작은 쉼터로 허브, 편백, 효소 세가지 테마를 이용하여 편색효소욕, 좌욕, 족욕, 반신욕, 허브증기욕 등 다섯가지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는 특징이 있으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이 들어서 있는 치유의 숲으로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웰니스관광에 대해 광주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강한 도시로 광주시가 전국 1위인 점과 요양병원 인프라, 관광자원을 연계해 개발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컨설팅 전문회사인 엘리오엔컴퍼니가 2018년 8월 발표한 ‘대한민국 건

16) 웰니스 관광 : 건강, 힐링, 자유, 요양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 휴양, 뷰티,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

강랭킹'에 광주지역이 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광주는 지역별 건강지수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81.1점으로 2위 대전보다 4.7점 높았다. 평가영역은 건강성과, 질병예방, 의료효율성, 의료공급 분야로 나뉘어지며, 고혈압 환자 전국 최저, 흡연률 최저,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1위, 건강검진수검률 등 대부분 최상위로 나타났다.

여기에 광주지역 요양병원 수는 65세이상 인구 십만명당 38개로 울산, 부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태국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풍부한 관광 자원, 스파자원으로 선진국의 고령자에게 건강수도로 유명하며,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 지역은 물과 예술, 휴양의 도시로 치료·재활 후 요양을 원하는 환자는 물론 부유한 은퇴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재활치료의 급증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의 많은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인근 전남의 스파 등 웰니스자원의 효율적인 접목을 찾아내 토탈케어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오히려 차별화된 광주만의 경쟁력을 더욱 용이하게 확보해 나가고 미래 먹거리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은 시장의 반응과 수요를 살펴가면서 웰니스 관광의 브랜드를 정립하고 있는 출발선에서 있는 단계로 광주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웰니스관광시설, 의료산업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광주만의 의료관광 브랜드 창출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광주만의 웰니스 의료관광상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 의료관광객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인천시의 추진사례와 같이 “별그대 in 인천 + 뷰티웰빙투어”을 인천시가 직접 개발하여 각국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개별 의료관광객을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과 같이 의료진들은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웰니스 관광 등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 외에 다른 웰니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곧바로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웰니스 의료관광상품의 소개, 필요성, 이용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여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후 웰니스와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판단된다.

4. 광주 의료관광 해외인지도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우선 중앙정부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의료관광산업 관련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일관된 정책구조가 필요하다. 의료관광 유치사업 주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부와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고유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창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특화 의료기술을 발굴 육성하고 주요 타겟층의 문화특성과 생활패턴, 접촉하는 매체 등에 따라 홍보내용과 수단 및 활용매체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광주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많음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류(韓流) 열풍과 연계하여 공항, 항만, 면세점 등 외국인 밀집장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현지 의료인 및 에이전시 등 의사결정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광주의료기술을 체험하고 알릴 수 있도록 국제컨벤션, 현지 의료관광설명회, 국내 초청행사,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지그룹을 형성하고 협력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산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사례와 같이 광주시도 상무지구, 버스터미널 등에 많은 의료기관과 호텔, 쇼핑, 교통,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대대적인 정비와 예산 투입을 통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마을 연계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곳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계 러시아 등 총 4,440명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광

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고려인 지원센터 개소, 고려인 마을 광주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려인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광주 의료관광에 대해 상품 설명회 및 팸투어, 친선 간담회 등 마케팅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경우 지역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사업이나, 광주시에서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 의사 대상 의료연수프로그램(희망나눔닥터누리 협력사업) 운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연수를 수료한 해외 의료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 진출 등을 통하여 해외거점 확보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주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수출하고, 연수 의료기관과 국가별 수료생 동문회 간 국제행사 공동개최, 환자 송출, 의료교육 강사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 가족 등 기존 고객과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SNS, UCC, 현지 언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광주의료의 성공적 치료와 감동, 나눔 사례 등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영상과 인포그래픽, 스토리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해외저널, 기내지, 재외공관, 관광명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의료 브랜드를 확산시켜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관광객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정보 측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이라고 한다.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외국인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의료기관 정보, 문진표, 안내문, 홍보 책자 등을 쉽게 제공받고 상담문의,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윈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와 연계하여 광주시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의료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의료관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의료관광의 해외인지도가 높은 대구시의 경우 올해 해외홍보사무소를 7개국 15개소에서 10개국 20개소로 확대한다고 한다. 광주시도 외국인환자의 현지 사전상담부터 출국 후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해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의료관광 해외홍보사무소를 몽골에 설치하고, 12월에는 러시아에도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구시의 추진성과 및 운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하는 등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의료관광 홍보관 추진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인천시는 750만명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겨냥하여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입국통제지역 내 환승의료관광 홍보관을 개소하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인천관 내에 인천의료관광 체험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추가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도 인천의료관광 홍보관을 개소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인 공항·항만 지역을 거점화하여 실질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고 하는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협약하고 정기노선, 저가 항공사가 확대 및 신규 취항을 하고 있고, 면세점과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처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하여 광주의료관광 홍보관과 체험관이 설치되어 웰니스 의료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면 광주시도 의료관광의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 간, 도시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세계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16년 489조원에 달하며, 자국의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환자는 매년 1,100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의료관광산업은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산업, 숙박, 쇼핑, 음식, 웰니스 등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관광의 트렌드 변화 및 글로벌 의료관광산업의 선진국 동향, 정부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의료기관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의료관광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광주시의 의료 및 관광자원을 비교하여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광주시의 의료관광산업은 (사)광주권의료관광협회가 2011년 설립되면서 최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육성기반 강화사업’ 5년연속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3년연속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광주의료관광안내소 및 의료관광해외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통·번역, 차량지원, 의료기관 예약을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의료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관절, 심혈관, 불임, 치과, 피부미용, 한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산업 및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 웰니스 관광자원을 결합한 광주만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창출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KTX 호남선과 SRT 개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에어필립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동남아, 러시아의 신규 취항 계획 등으로 광주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 추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의료관광의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만큼 지금이 광주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

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쟁 도시들에 비해 미흡한 실적의 원인과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진료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관광은 국제의료서비스 분야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의료인을 양성·고용하거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유치기관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기 많은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자체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주지역은 소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으므로 지역의 많은 중소형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2·3차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주시에서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형 병원의 의료관광 모델 개발과 국제인증(JCI)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전문가 컨설팅, 자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에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서비스 후 문제 발생시 일정조율, 각종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는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Peace-Of-Mind, PO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중증치료, 요양, 건강검진, 치과, 산부인과 등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요양병원 등 많은 의료자원, 의료산업, 웰니스 관광자원 결합해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여행사 설명회 및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실제로 해외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타켓층의 문화특성과 생활패턴, 접촉 매체 등에 따라 홍보내용과 수단 및 활용매체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문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전폭 지원, 광주만의 특화된 브랜드 및 상품 개발,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광주시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의 선도도시로 자리잡을 것이고, 나아가 지

역 의료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련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9> 광주 의료관광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문제점	활성화 방안
○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가능한 전문 의료인 양성·고용 ○ 다문화가정 출신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 의료기관 자체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웰니스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 소수 의료기관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차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중·소형 병원 대상 선도기관 지정·지원을 통한 의료관광모델 개발 및 역량강화 ○ 국제인증(JCI) 취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광주 의료관광 상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 결합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의향, 예향, 미향)와 전남(친혜의 자원) 협력 상품화·산업화 ○ 의료산업 연계 브랜드 창출 ○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추세에 따른 요양병원 인프라 및 스파, 자연숲치유 등 웰니스 자원 접목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 중증치료, 검진, 성형·피부, 치과, 불임 등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와 뷰티, 해수치료, 아로마테라피, 기치료 등 의료관광 상품 개발 ○ 지자체 직접 상품 개발 후 여행사 판매 홍보 ○ 의료진 대상 웰니스관광 효과 등 인식개선 위한 제도적인 지원
○ 낮은 인지도 및 홍보전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韓流) 연계 의료관광 상품 홍보 ○ 국제컨벤션, 의료연수 등을 통한 지지그룹 형성 및 협력기회 확대 ○ 밀집지역 광주메디컬스트리트 조성 ○ 고려인마을 연계 현지 네트워크 구축 ○ 기존고객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SNS, UCC, 현지언론 등 활용 ○ 외국인환자 정보제공·상담·예약 등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의료관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현지 거점 의료관광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및 무안국제공항 연계 광주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IOM이민정책연구원 (2017),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홈페이지 (<http://opendata.hira.or.kr>).
-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5), 해외환자 80%, 재방문 NO.
- 곽대영 (2013),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상품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한국컨벤션학회, 13(1), 83-100.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tour.go.kr>).
- 광주광역시 (2016), 제6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 광주광역시 (2017), 광주시정통계.
- 광주광역시 (2018),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2018),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계획서.
- 광주광역시 (2018),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강화 사업계획서.
- 광주전남연구원 (2016), 전남 의료관광 발전전략 연구.
- 국가암정보센터 (2013), 암등록 통계자료.
- 국무조정실 (2018),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가관광전략회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서 찾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 국민일보 보도자료 (2011), 의료관광 한류바람 외국인환자 유치 성공사례.
- 김도영 (2011), “한국형 의료관광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3권 3호, 203-223
- 김상화 (2016), “대구의료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김영주, 김주현 (2018), “의료서비스 기대수준 및 국가이미지가 의료관광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현지인의 한국 방문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22권 3호, 187-214.
- 김재하 (2010), “한류의 동향과 발전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 대구광역시 (2018), 2018년 대구의료관광 추진계획.
- 동아일보 보도자료 (2013), 히말라야 스파 같은 역발상 상품, 창의적 인재 길러야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2),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16,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11), 한국의료관광총람.
- 박상원 (2011), 광주권 의료관광 성공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보건복지부 (20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2016, 2017),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2017년 외국인환자 32만 1574명, 전년 대비 12% 감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산업연구원 (2013),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15-22, 30-69, 109-113.
- 싱가포르관광 홈페이지 (www.yoursingapore.com).
- 어등치맥 (2015),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역년중국위생통계공보 (2014).
- 오창면 (2017), 부산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발전정책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 이려정, 김병용(2014), “한국 국가이미지와 의료관광 서비스품질 및 재방문 의도 간 영향관계 - 방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23

권 3호. 83-104.

- 이미정 (2015),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 A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
- 이해종 (2012), “OECD 주요 의료수가 비교”, 세미나 발표자료.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8), 인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 장양례, 서정석 (2012),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장천 (2015),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문선 (2016), 한국 의료관광의 제약요인과 성공가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 정미야 (2013),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조구현, 박찬열 (2014), 의료관광의 이해, 서울: 기문사.
- 중앙일보 보도자료 (2013), 한국암환자 생존율 미국 추월.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8),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지역별 현황.
- 한국경제 보도자료 (2014), 러시아 무비자 입국 허용, 의료관광 엘도라도 열렸다.
- 한국관광공사 (2013), 의료관광단지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관광투자 뉴스레터, 3-4.
- 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
- 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 의료관광 산업 생태계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중장기 전략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2017), 한국의료관광 만족도 조사.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만족도 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새만금 국제의료관광(헬스케어) 허브 구축 방안 연구, 75-8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한 눈에 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길잡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5),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7) 광주전남지역 관광 현황 및 시사점.

2. 국외 문헌

Goodrich R.(1993), Socialist Cuba : A Study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1), 36-41.

Gupta, A.(2004), Medical tourism and public health, *People's Democracy*, 25(7). May, 36-42.

Hall, C. M. (1992). Adventure, sport and health tourism. *Adventure, sport and health tourism.*, 141-158.

The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 2013&2014, 2015, SRI International
 VISA and Oxford Economics (2016), Medical Tourism Magazin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Mental Health Atlas 2014

<<http://www.incredibleindiahealthcare.com>>

<<https://www.jointcommissioninternational.org>>

<<https://www.medicaltourismassociation.com>>